metro
메트로 2014년 6월 18일 수요일 www.metroseoul.co.kr

모여라 광화문 광장으로 2014 브라질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첫 경기인 러시아전(18일 오전 7시)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거리응원을 위한 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손진영기자

즐겨라 태극전사…희망을 쏴라!

결전의 날 위기서 강한 한국 기적의 드라마 기원
강인한 체력 바탕 러시아 꺾고 붉은 태양 맞는다

브라질에서 쓰는 기적의 드라마가 시작됐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2014 브라질 월드컵 개막 엿새째인 18일 오전 7시 마침내 러시아와의 첫 경기를 치른다. 브라질 쿠이아바의 판타나우 경기장에 이틀 전 도착한 태극전사들은 지난 10일 베이스캠프인 이구아수에 도착했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결의에 찬 표정으로 승리를 다짐했다.

지난달 28일 월드컵을 앞두고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치른 튀니지 평가전에서 0-1로 패한 홍명보호는 지난 9일 마이애미에서의 가나 평가전에서 0-4 완패했다. 선수들의 자신감도 추락했다. 이 때문에 대표팀 분위기가 역대 최악이라는 소리까지 들렸을 정도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은 언제나 어려움을 딛고 승리의 기적을 일궜다는 점에서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2002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는 물론이고, 2009년 이집트 국제축구연맹 청소년월드컵(U-20) 8강,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은 모두 절망을 영광으로 바꿔놓은 홍 감독이 걸어온 길이다.

평가전의 연패 트라우마를 훨훨 털어낸 선수들은 러시아전 승리에 목말라있다.

기성용(스완지시티)은 "평가전 결과에 실망한 분도 있지만 러시아와의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서로 믿으며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것"이라고 희망을 얘기했다. 박주영(아스널) 역시 "밀어 이기는 게 나의 각오"라며 공격수로서 공격뿐 아니라 수비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 감독은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첫 경기 결과가 조별리그 내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도 이왕이면 첫 경기에서 승리를 원한다"고 지향하게 승리 전략을 세웠음을 시사했다.

한국과 러시아 모두 공격보다 수비에 치중한 지지 않는 경기를 우선으로 하는 팀인 만큼 골 결정력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홍 감독은 "양팀 모두에게 찬스는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얼마나 골 결정력이 높은지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어느 시점에, 어떤 찬스에서 득점하느냐가 경기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스포츠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는 "H조는 모두가 벨기에와 러시아가 편하게 16강에 오르리라 예상하는 '이상한 조'이지만 그렇게 쉽게 끝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몇 차례의 이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러시아가 브라질의 더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꼽았다.

홍 감독은 "쿠이아바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습도가 높은데 마이애미 훈련에서 선수들에게 내성이 생긴 것 같다"고 강조하며 한국 축구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으로 기적을 쓸 준비를 마쳤음을 내비쳤다.

<관련기사 23면>

/황순호기자 sunc@metroseoul.co.kr

한·우즈베크 정상 의장대 사열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 행사에서 카리모프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타슈켄트=연합뉴스

2기 내각 출범 "너무 꼬인다"

총리 임명동의안 제출 미뤄져… 김명수 등 논문 표절 의혹 청문회 난항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정국 이후 인적쇄신 차원에서 단행한 2기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청문회 문턱에 오르기도 전에 이른바 '신상 검증'을 통한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교회 대학 강연, 칼럼 등에서 보인 '역사인식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야권은 "자진 사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와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려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감하게 감지됐다. 16일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이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고 포문을 연지 하루만에 좌장연 서청원 의원은 17일 "문 후보 스스로 언행에 대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라"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결국 이날 오후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려던 청와대도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의 일정과 시차 등으로 인해 임명동의안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문 후보자 외에 김명수 교육, 정종섭 안전행정 등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을 둘러싼 논문관련 의혹도 터져나왔다.

김 후보자의 경우 2002년 6월 발표한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김 후보자의 제자인 정모씨가 같은해 2월 쓴 석사학위 논문과 제목·내용에서 상당부분 일치했다. 김 후보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서 자신을 1저자로, 제자 정씨를 2저자로 게재했다.

정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가 의심됐다.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셀프표절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2006년 학술지 '법과 사회'에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이 2005년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단핵여부 결정권'과 내용과 문장이 상당 부분 겹친다.

송 수석은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선준기자 sjkim@metroseoul.co.kr

늑장 사과한 'K2코리아' 행태

기자 수첩

김 학 철 <생활레저부 기자>

국내 굴지의 아웃도어 업체 K2코리아도 고객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아웃도어 업계 최초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K2는 지난 1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회원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유출 내용과 시점,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하루 앞선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통지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유출시점이 2010년 10월 19일로 확인됐다는 내용과 함께 사과글이 16일 올라왔다.

2010년에 발생한 사고를 4년 가까이 되서야 '남이 알려줘서' 알 수 밖에 없었던 K2가 얼마나 고객정보 보호에 의지가 없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K2의 정보 유출은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다. 지난 3월 떠들썩했던 CJ대한통운의 택배 배송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2도 이 업체에 배송업무를 위탁해 왔다. 통신사들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 때 포함됐던 LG유플러스에 K2는 문자발송 업무 대행도 맡겼다.

K2는 이같은 일련의 사고로 인해 자사 회원들의 정보유출 개연성이 큰데도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가 스스로에게 물어 봐야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K2는 지난 3월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아이더는 이번 유출사고에서 안전하다고 홍보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K2 측의 무책임함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어물쩍 넘어가려하지 말고 사태의 발단부터 향후 대책까지 꼼꼼하게 되짚어 봐야하는 이유를 잘 알것이라고 믿어본다.

문창극은
사퇴하라
친일파
문창극 국
정 철회
사회단체 기자

"문창극 후보 절대 안돼"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세종로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제공

'현금가방' 털린 박상은 의혹 증폭

액수 얼마인지도 몰라… 운전기사 소환 조사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17일 '해운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께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과 정체 자료가 담긴 가방을 훔친 혐의로 박 의원 측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그러나 A씨는 다음날 현금과 서류 일체를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인천지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인천지검은 해운업계의 전반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16일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인천 계양구 모 건설업체를, 지난 주말에는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국학술연구원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특보를 건설업체에 위장시킨 뒤 특보 월급을 대납하도록 한 의혹을 받아 왔다.

당초 박 의원 측은 가방에 현금 2000만원이 들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제 얼마가 들어 있었는지는 박 의원조차 모르고 있어 의혹이 증폭됐다. 검찰은 조만간 박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민준기자

뉴스&뉴스

한·중 3년만에 해양경계 획정 회담

●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3일 서울에서 비공개로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진행했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강정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어우양위징 중국 외교부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해양경계 획정 담당 국장이 만난 것은 2011년 이후 3년 만이다.

부동산 대책 여야정 협의체 제안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17일 초당적으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논의할 것을 여권에 제안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재소자 앞으로 100% 쌀밥 먹는다

● 앞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100% 쌀밥 식사가 제공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감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을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하는 기존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쌀로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亞게임 남북 단일팀, 요청 있으면 협의"

통일부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종목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인천시 등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입장으로서 북한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 국제 관례 등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보도된 단일팀 구성 등은 공식 요청이 있으면 인천시, 조직위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 남북 관계 상황에 비춰 단일팀 구성이나 공동 입장은 부적절하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지난 4월 "남북 단일팀, 공동 입장, 공동 응원, 단일기 사용, 합동 공연은 현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15명 중 1명만 "변명 않겠다"

자살 시도했던 1등 기관사 혐의 인정…나머지 승무원들은 부인

세월호 승무원 15명 가운데 1등 기관사만 유일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등 기관사 손모씨의 변호인은 1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승무원들에 대한 두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밝혔다.

손씨의 변호인은 "수난구호법을 어기고 운항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못 한 것이 선장 등에게 지시를 못 받아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고, 순식간에 배가 기울어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다만 수사 개시 후 자살을 기도했고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된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각자 행위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탐욕에 가득 차 세월호를 시한폭탄으로 만들고 결국 침몰하게 한 기업과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원들이 모두 처벌된다 해도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3등 기관사와 조기수 2명 등 다른 3명은 변호인을 통해 "배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공황상태에 빠져 구조 생각을 하지 못했고 설사 구조 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승객 모두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로써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준석 선장 등 11명과 이날 3명 등 14명은 검찰과 변호인간 유무죄 다툼을 벌이게 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한차례 공판준비절차를 거친 뒤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불리는 여객선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 증거조사 등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선근기자 mjsan@metroseoul.co.kr

"나도 IT 전문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14 국민행복 IT경진대회에서 어르신 참가자들이 과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성·달성군 이어 무안서도 AI

강원도 횡성군과 대구시 달성군에 이어 17일 전남 무안군의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인 H5N8형이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AI가 다시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긴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무안군의 육용오리 농가가 의뢰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H5N8형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의 최종 검사 결과는 19일 나올 예정이다. 해당 농가의 오리 9600여 마리는 살처분됐다.

다행히 이 사육 농가의 반경 500m 이내에는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전국 일부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방역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20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김보준기자

짝퉁 브라주카 적발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제3지정 장치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지난 5월 어린이 용품 등 불법 부정수입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한 짝퉁 축구공 '브라주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장지지하차도 철거…지상 5~6차로 변경

서울시 송파구 장지지하차도 철거 공사가 마무리됐다.

장지지하차도는 1980년 남부순환철도 건설계획에 따라 철도부지 확보를 위해 1986년 건설됐지만 1993년 철도 건설계획이 취소되면서 지하차도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였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문제와 더불어 지상 차도의 폭이 좁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주민의 철거 요구가 이어졌다.

송파구 관계자는 17일 "지난해 5월 말 철거 공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마쳤다"며 "과거 왕복 지하 2차로, 지상 2차로이던 도로가 지상 5~6차로로 변경됨에 따라 교통 체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호기자

수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천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호화 생활을 누린 일당이 적발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7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국내 운영총책인 조모(30)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이달까지 인천, 화성, 강남지역 가정집과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게임당 최대 100만원을 배팅하도록 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이 기간동안 290억원에 달하는 도박금을 입금 받아 이 가운데 16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등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고가의 스포츠카를 1년에 3차례 구입하고 명품 시계와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우기자 cyclone@

유명 치대교수 학위 장사

제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학위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논문을 대필해 준 혐의 등으로 수도권의 한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 홍모(6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홍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학생들의 논문을 대신 써 주고 학위논문 심사까지 통과시켜 준 대가로 대학원생 10여 명으로부터 3억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의 도움으로 사실상 '가짜 학위'를 얻은 졸업생 가운데 일부는 현직 의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혜기자

대법, '짝퉁' 제작 5억 배상하라

루이비통 일부 승소 판결

루이비통 가방을 대량 제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루이비통 본사에 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프랑스 루이비통이 원모(5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씨는 2010~2011년 루이비통 가방 1만6000여점을 만들어 그 중 1만4000여점을 판매했다. 위조한 가방의 정품 시가는 1점당 평균 209만원에 달했지만 원씨는 평균 1만7000원에 팔았다.

루이비통은 원씨가 판매한 1만4000여 점의 정품 시가 311억원에 영업이익률 11.2%를 곱한 3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며 재산상 손해액을 3억5000만원으로 판정했다.

이어 "원씨가 루이비통의 제품이 갖는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며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1억5000만원으로 판시했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는 징역 1년의 실형도 선고받았다.

/김다혜기자

희망마을 아카데미 운영

서울시 강북구는 '마을사업 준비 주민모임 마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7월1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미아동 주민센터 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 전날까지 30여 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홀몸 어르신들 생신잔치

서울시 강동구는 17일 한민교회(천호대로 168다길 39)에서 구내 교동협의회와 함께 제2분기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내2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70여 명이 초청됐다.

2천억원대 가짜 석유 유통

제조·유통업자 무더기 검거

2000억원대 가짜 석유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가짜 석유를 만들어 불법으로 시중에 내다 판 혐의 등으로 김모(6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가짜 석유 제조용으로 쓰이는 줄 알면서도 원료를 납품한 혐의로 화학업체 법인 2곳을 입건하고 해당 회사에서 일하며 가짜석유 제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직원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불잡았다.

가짜 석유 제조·유통업자 15명은 2009년 4월부터 4년 동안 충남 금산과 논산 등지 창고에서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섞은 이른바 '용제형 가짜 석유'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해왔다. 경찰에 단속된 가짜 석유량은 1억 2300만ℓ로, 시가 2460억원 상당에 이른다.

특히 김씨는 유령회사 8곳을 세워 솔벤트와 톨루엔을 판 것처럼 꾸미고 가짜 석유를 만들어 제조업자에게 팔았다.

/김조준기자 mikim@

3천만원에 뒤바뀐 운명

한전 운영 마이스터고 교사채용 비리 적발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에너지분야 마이스터고교인 수도전기공고에서 교사 채용에 일인당 수천만원의 뒷돈이 오간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정교사 채용 대가로 6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수도공고 교감 황모(50)씨를 구속기소하고 뒷돈을 상납받은 한국전력공사 여모(53) 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뒷돈을 건넨 이 학교 교사 정모(33)씨와 다른 교사의 아버지 이모(60)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감 황씨는 2013학년도 정교사 채용이 진행되던 2012년 11~12월 정씨 등 2명에게서 현금 6500만원과 시가 400만원 상당의 임능 카몰경(61) 회백의 한국화 2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노스페이스 가방에 현금 3500만원을 넣어 전달한 뒤 한국화를 주기로 건넸다. 이씨도 검은색 비닐봉투에 3000만원짜리 돈다발을 담아 줬다.

황씨는 이들에게 각각 전공시험 출제 영역과 비율, 논술시험 지문의 저자를 미리 알려줬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정씨 등은 해당 과목에서 1등을 차지했다.

이씨는 논술시험 응시자 291명 중 262명의 점수를 뒤섞는 수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밀어줘 최종 합격자 가운데 3명의 당락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배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숨 쉬는 비닐화분 1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어린이들이 기술원이 개발한 숨 쉬는 비닐화분에 상추 등 가지 허브 작물을 심는 도시농업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시락 배달하는 집배원

동대문우체국 집배원이 최근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길에 있는 홀몸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했다.

동대문우체국은 지난 3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사랑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부식비 지원과 월 2회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성신 연례 안보포럼 개최

성신여대는 17일 수정캠퍼스에서 '여성안보전문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성신 연례 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윤종성 교수가 '성신여성안보전문가 육성방안'을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꼬마 로봇’ 히치하이킹 여행

도로서 차 얻어 타고 캐나다 대륙 횡단 ··SNS에 일기 올릴 예정

꼬마 로봇이 히치하이킹(차 얻어타기)으로 캐나다 대륙횡단에 나선다. 16일(현지시간) C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맥마스터대학의 데이비드 해리스 스미스 교수가 제작한 로봇이 다음달 27일 단독으로 대륙 횡단을 시작한다.

'히치봇(히치하이킹과 로봇의 합성어)'으로 명명된 이 로봇은 도로에서 팔을 들어 지나가는 차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게 된다. 노바스코샤 예술디자인 대학을 출발,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서단 도시 밴쿠버섬의 빅토리아로 여정은 이어진다.

스미스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가 로봇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인간과 기술 사이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한 예술 창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로봇을 만들었다고 했다.

히치봇은 6세 어린이 몸집만한 크기다.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음성인지 언어표현 기능을 갖췄다. LED 스크린을 통해 문자로도 의사교환을 할 수 있다. 위성위치 확인시스템(GPS)과 3G 무선통신 기능도 있다. 자신의 위치를 사진과 텍스트로 페이스북 등 SNS에 매일 올릴 예정이다. 자체 이동은 불가능하다. 히치하이킹을 위해 스스로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을 뿐이다.

스미스 교수는 "히치봇이 장난꾸러기 아이처럼 제멋대로 굴 수도 있다"며 "차량 동승 중 일어나는 일이 동영상과 텍스트 등으로 인터넷에 공개되는 만큼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히치봇을 피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전자와 히치봇의 마음이 잘 맞을 경우 로봇을 집으로 데려가 파티를 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로봇이 사람과 소통하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상자에 버려진 아이 홀로 키워

metro HongKong

'폐품 아빠' 父情 눈길

7세 딸이 수학 문제집 푸는 모습을 아버지 승젠귀(51)가 지켜보고 있다. 평범한 가족 풍경 같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부녀의 이야기다.

7년 전 승젠귀는 난징시의 한 마트 입구에서 쓰레기를 뒤적거리던 중 갓난아이가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발견했다. 상자에는 '2007년 10월 15일 출생'이라고 적혀있었다. 그는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아이를 두고 갈 수 없었다. 승젠귀는 아이를 데리나 승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키우기 시작했다.

당시 승젠귀와 그의 아내는 한 회사의 당직실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초등학교 3학년밖에 다니지 못한 그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 폐품을 수집하며 하루하루 살아갔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그와 아내는 승연을 끔찍이 사랑했다. 매년 딸의 생일에는 사진관에 가서 멋진 사진도 찍어줬다.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가족에게 어느날 불행이 닥쳤다. 아내가 작별인사도 없이 집을 나간 것이다. 지난 2월에는 세 살던 곳이 철거되면서 갈 곳이 없어졌다. 하는 수 없이 승젠귀는 딸을 데리고 잠시 다리 밑에서 살기로 했다. 담요 하나, 이불 하나가 두 식구의 집안 살림 전부다.

그는 낮에는 딸을 데리고 기차역에 가서 폐품을 줍고 저녁에는 다리 밑의 거처로 돌아와 딸에게 글자와 산수를 가르친다. 그는 "딸이 이미 독학으로 1학년 과정을 마쳤고, 당나라 시도 삼이 편 암송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승젠귀의 가장 큰 걱정은 학교에 다니고 싶어하는 딸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경제 사정이 고아입양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승연을 호적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리=조선미기자

브라질 경찰, 월드컵 반대 시위대에 실탄 발포 16일(현지시간) 브라질 나탈에서 진압 경찰들이 월드컵 반대 시위대를 막아서고 있다. 이날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한 경찰관이 월드컵 반대 시위대에 실탄을 발포해 논란을 빚었다. /로이터 연합뉴스

“힐러리가 오바마보다 잘할 것”

CNN 국정운영 여론조사 결과 ··외교·경제 등 모든 분야서 앞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보다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이 성인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힐러리 전 장관은 국내외 각종 현안에서 오바마 대통령보다 나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국정수행능력 지지도에서 응답자의 63%가 힐러리 전 장관이 대통령이 되면 외교정책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테러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61%가 잘할 것으로 예상했다. 힐러리 전 장관이 취약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제 분야에서도 응답자의 63%가 잘할 것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의 사인회에 참석하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의 한 서점을 찾았다. /AP 연합뉴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점수는 좋지 않았다. 응답자의 38%만 그의 경제정책 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힐러리 전 장관에 비해 25%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40%에 그쳤다. 힐러리 전 장관보다 23%포인트 낮다.

이번 여론 조사는 9개 정책 현안을 두고 이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중 단 한 건도 50%를 넘지 못했다.

/조선미기자

‘세 손가락 인사’ 낙서 지폐 왜?

태국 군부 쿠데타 반대 상징

쿠데타를 반대하는 의미의 '세 손가락 인사'를 낙서한 지폐가 등장해 태국 군부가 긴장하고 있다.

16일 태국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바트화 지폐에 글자를 쓰거나 기호를 표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태국에서는 영화 '헝거게임'에 나오는 독재 저항 제스처인 '세 손가락 인사'가 쿠데타 반대를 상징하고 있다. 군부는 시위 때 세 손가락 인사 제스처를 하면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실제 군경은 이달 초 세 손가락 인사를 한 시위대 7명을 체포했다.

앞서 쿠데타를 감행한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은 "집 밖에서 세 손가락을 치켜들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방콕포스트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7일>

지표	지수	변동
코스피	2001.55	(+7.96)
코스닥	537.90	(+1.89)
금리	2.73	(+0.01)
환율	1021.50	(변동없음)

뉴스&뉴스

햇보리 출시 17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금풍에 전남' 보성에서 수확한 햇보리(4kg)를 한 봉지당 시중가보다 20%가량 저렴한 5900원에 판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복권 3조7000억원 발행

● 정부가 내년 복권 총 발행금액을 올해보다 2.7% 늘어난 3조7000억여원으로 결정했다.

1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2015년 복권발행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에 발행되는 복권은 총 3조7077억원 어치로 올해 계획보다 959억원(2.7%) 늘어난다. 이 가운데 온라인복권(로또)이 전체 발행량의 85%(3조1506억원), 인쇄복권이 13.2%(4876억원), 전자복권이 1.8%(675억원)를 각각 차지할 전망이다. 올해 계획량과 비교해보면 잘 팔리는 온라인복권 발행은 늘리고 매출이 미진한 인쇄복권과 전자복권은 발행량을 유지하거나 줄인다. /[illegible]기자

교보생명, 480명 희망퇴직

● 교보생명이 15년차 이상 직원을 상대로 480명의 희망퇴직자를 확정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번 인력 구조조정에서 일단 휴직을 하고, 창업을 시도해 여의치 않으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창업휴직제'도 도입했다.

이번에 100여명이 신청한 창업휴직제는 6개월, 1년, 2년 등 휴직 기간을 선택해 휴직하고 나서 해당 기간이 끝나면 희망퇴직도 신청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매년 입사 15년차와 20년차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40~50여명의 인력을 줄여왔으나, 이번처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벌이기는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illegible]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illegible]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851
발행인·편집인 [illegible]
사장 편집인 [illegible]
편집국장 [illegible]
광고문의 02)721-9851~9
독자센터 02)721-9811
[illegible]

휴가철 앞둔 완성차, 판촉전 불붙나

특별할인에 재구매 고객 우대 공략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완성차업계들이 적극적인 판촉전에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지난달 할인이 없던 i40는 30만원 할인해주고, 그랜저는 50만원 할인 또는 3.9% 저금리할부를 선택할 수 있다. 아반떼는 3.9% 저금리할부만 되던 조건 외에 30만원 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대 고객(1984년 이후 출생자)이 아반떼를 출고할 경우 20만원을 할인해주고, 수입차 보유 고객이 에쿠스를 구매할 경우 50만원을, 벨로스터나 i30, i40를 구매할 경우 30만원을 할인해준다.

기아자동차는 더욱 다양한 조건을 내세웠다. 6월 개인출고 고객에게 아이나비 블랙박스 2종, 페도라 유모차, 카시트 4종, 오지오 프리미엄 가방 3종 등 9가지 품목 반값 상당 구매 혜택을 준다.

또한 2014년 1월 1일 이후 기아차 개인출고 고객과 개인출고 고객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는 갤럭시 S5를 공짜로 준다(SKT LTE 무한 69요금제 24개월 약정). 갤럭시 S5를 특별 구매한 이에게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할 경우 경기당 5만 OK캐시백 포인트를 제공한다.

한국GM은 말리부 디젤과 카마로, 스파크 EV를 제외한 전 차종을 할인해주는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을 연다. 스파크 밴은 20만원, 트랙스는 50만원, 말리부는 90만원, 캡티바는 100만원을 할인한다. 또한 스파크는 선수금 10%를 낼 경우 12~36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은 10만~30만원의 특별할인을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한정판으로 내놓은 '서머 스페셜 컬렉션'은 SM5와 SM7의 리어 글라스와 뒷좌석 윈도 선 블라인드, 뒷좌석 독립 풀 오토 에어컨, BOSE 사운드 시스템 등을 묶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전역 경찰 공무원, 현역 군인(장교/부사관)과 군무원, 소방관 본인 가족에게 SM3는 30만원, SM5와 QM5는 50만원, SM7 2.5는 70만원, SM7 3.5는 100만원의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택시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6월 중 개인택시 구매 고객에게 50만원 추가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쌍용자동차는 재구매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2009년형 이전 체어맨은 체어맨 H나 체어맨 W로 바꿀 경우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해주고, 로디우스나 카니발, 스타렉스를 보유한 고객이 코란도 투리스모로 바꾸면 155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쌍용차를 신차로 출고한 경험이 있는 고객 또는 보유 고객이 쌍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수에 따라 '체어맨 W 5.0'은 200만원, '체어맨 W CW 600, CW 700' 및 '체어맨 H'는 50만~100만원, '렉스턴 W' 및 '코란도 C',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투리스모'는 10만~5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 /[illegible]기자

지난달 '물' 수입 사상 최대 지난달 물 수입액과 수입량이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물(HS코드 2201) 수입액은 375만3000달러, 수입중량은 1만5[illegible]으로 관세청이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정품 SW 사용늘어나면 GDP 1조6000억 증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도 1조6000억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17일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및 제언' 보고서에서 프랑스 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이 최근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INSEA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1%포인트 더 사용할 때 발생하는 GDP 증가 효과는 15억달러(한화 약1조6000억원)로 추정된다. 이런 경제적 효과는 합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소프트웨어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계산됐다.

반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1%포인트 늘 때 GDP 증가 효과는 약 3억3500만달러(한화 약 3700억원)에 그쳤다. 정품 사용이 GDP 증가 면에서는 4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율은 40%에 이른다. 이는 세계 평균(42%)과 비슷한 수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7%)보다는 1.5배 많은 수치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에 관대한 문화와 소프트웨어를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행 등이 소프트웨어의 정품 사용을 막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illegible]기자

연준 금리 인상할까?

FOMC 회의 주목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7~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양적완화 규모 축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양적완화 규모를 월 100억 달러(약 10조2000억원) 축소하는 현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통화정책 면에서는 큰 기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의 초점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할지에 맞춰져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연준이 양적완화 규모를 기존 월 45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양적완화 규모는 100억 달러씩 꾸준히 줄어왔던 흐름을 이번에도 이어간다는 것이다.

특히 회의 직후에는 재닛 옐런(사진)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비롯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금리 전망 발표 등이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관한 로드맵이 제시될지 주시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논의가 금리 인상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면서도 "회의를 앞두고 일부 경기지표가 이전보다 둔화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이사도 "연준이 금리인상을 생각하기 앞서 낙관적인 경제 증거가 나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은경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가 정상적인 회복 궤도에 있지만 시장의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며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의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 /[illegible]기자

동부화재

운전중 교통상해사망까지 보장하는 보험 -

생명보험이에요? 운전자보험이에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시
3억원 일시금 지급
(특약 가입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자동차 부상치료비
5만원 ~ 400만원 지급
(특약 가입시)

매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지는 않나요?

갱신·할증없이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종합보험(1404)

갱신없이~할증없이~
이 보험 하나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형사기소시 변호사 선임비용
법원판결 벌금

전화상담 만 받으셔도

080-249-7000

월드풋볼 깨뜨리며 승리 기원해요 해태제과가 전국 주요 대형마트에서 초콜릿으로 만든 축구공인 '월드풋볼'을 깨뜨려 나눠 먹으며 한국 축구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캐시백부터 야식할인까지

카드사, 월드컵 특수 잡기 분주

브라질 월드컵 국가대표팀의 첫 경기인 러시아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월드컵을 내세운 카드사의 마케팅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세월호 참사 등으로 주춤했던 카드사들이 월드컵 특수를 맞아 캐시백과 야식 할인 등 한국의 승리를 기원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먼저 KB국민카드는 FIFA 브라질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비자카드와 손잡고 캐시백 제공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7월 14일까지 KB국민 비자신용카드와 비자체크카드 고객은 브라질 월드컵의 한국 대표팀 성적에 따라 최대 100만원 캐시백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도 비자카드와 함께 'BIG to GREAT 골 Festival' 이벤트를 열고 있다.

신한카드는 신한 비자카드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기에서 골을 넣는 선수를 맞힌 고객에게 총 3000만원 내 캐시백 등을 제공한다.

한편 월드컵이 열리는 시각이 새벽임을 감안해 야식 주문 혜택도 있다.

하나SK카드는 '배달의민족'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주문하는 회원에게 10%의 캐시백 혜택을 준다. 또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편의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삼성카드는 월드컵 기간 중 야간에 외식 업종을 이용한 회원 100명을 추첨해 이용액 전부를 캐시백할 예정이다.

BC카드도 오는 7월 14일까지 맥주 할인, 먹거리 경품, 단체 응원 초대 등으로 구성된 '응원의 정석'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이번 행사에 따라 BC카드 고객은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일 전날부터 당일까지 수입맥주, 과자류 등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재현기자

인플레 덕분에 국내 증시 오른다?

업계 관련 보고서 잇따라 소비증가 수출 확대 기대

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는 인플레이션에 달렸다는 전망이 속속 쏟아져나왔다. 선진국 시장에 돈이 풀려 소비도 늘고 물가도 오를 경우 국내 수출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17일 증권사들은 잇따라 인플레이션과 국내 증시의 상관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트레이드증권은 "통상 인플레이션 초기 국면은 주식투자의 적기로 여겨진다"며 "지난해 글로벌 경제에 만연했던 디플레이션 공포를 뒤로 하고 인플레 기대가 형성될 시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지호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1990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보면 CPI가 2% 전후일 때 인플레 기대심리가 생긴다"며 "지난 달 CPI가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국들도 물가 상승에 물꼬를 트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의 가닥을 잡았다.

김승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럽은 저물가에 대항하기 위해 통화완화정책을 내놨고 중국도 일부 지급준비율을 인하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돈을 풀기 시작했다"며 "미국 역시 안정적인 성장 궤도로 돌아오면서 내년 4~6월 금리 인상 논의가 나오는 등 향후 물가가 살아날 기대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새로운 내각의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증권가는 글로벌 물가 상승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지에 주목했다.

김승현 연구원은 "선진국 물가와 한국 수출가격 간 상관계수는 0.7이 넘고 중국 물가와의 상관계수도 0.6 이상"이라며 "이에 따라 그간의 저성장·저물가 환경에서 고전을 겪은 수출 이익증가 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라고 말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국면 돌입으로 수혜를 볼 업종으로는 IT·에너지·소재·산업 등을 꼽았다.

윤지호 연구원은 "연말 미국의 소비사이클이 2012~2013년에 비해 좋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IT 수출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최근 수년간 바닥을 쳤던 산업재 등의 업종은 수주 등 가시화된 실적이 지속되는 업체를 위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노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요국의 경기회복과 경기부양정책으로 2011년 이후 부진했던 국내 업종들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게다가 국제 유가와 상품 등 원자재 시장이 이라크 리스크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전했다. /유현정기자

5만원권 환수율 반토막 올해 5만원권 환수율은 27.7%로 지난해(52.3%)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27.7%라는 환수율은 한국은행 금고에서 나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0장이라고 할 때 약 28장만 한은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뉴스

40세 미만 DTI 완화 1년 연장

은퇴자에도 적용키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로 연장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지역별, 금융권역별 차별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에게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7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별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오는 9월에 종료되는 20~30대 청년층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차주의 DTI를 산정할 때 앞으로 10년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소득 산정에 반영하는 한시적 조치를 내년 9월까지 계속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DTI 소득 산정에 반영하면 대출액이 늘어난다.

소득이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하는 것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지역별로, 금융권역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LTV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LTV는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60%, 저축은행·여전사 등 60%, 상호금융 70%다. 그러나 같은 은행이더라도 서울(50%)과 지방(60%)에 다른 LTV가 적용된다. /김우택기자

"'검은 머리 외국인' 꼼짝마"

금감원 위장거래 감시 강화

금융당국이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활용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증권거래를 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위장 외국인 투자자를 가려낼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하고 감시목록(Watch List)을 만든다고 밝혔다.

위장 외국인은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거나 법인을 복수로 설립해 여러 건의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법인의 사업 실체가 불분명하고 자본금 규모가 영세하다는 특징이 있다.

거래 측면에서 위장 투자자는 시세 조종 등을 위해 잦은 매매를 하거나 투자 포트폴리오 없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

금감원은 내부모형을 개발하는 데 이 같은 위장 외국인의 특징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다수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증권을 분산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 및 변동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공모주 청약 시 청약증거금 면제, 시세조종, 과세 회피,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내국인이 외국인투자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자사주와 계열사 주식을 분산 매수하거나 허수 고가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한 기업 대표이사를 적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개발한 내부모형 등을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와 공시 위반 감독 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불법 거래 등을 위해 외국인으로 위장한 투자자를 투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한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보는 "자본시장법규상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과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을 지칭한다"며 "외국인 정의에서 불법 거래를 위한 위장 외국인과 관련한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석기자

3배 빠른 LTE시대 다음달 열린다

'갤럭시S5 광대역 LTE-A' 출시… 전국서 상용화

기존 LTE에 비해 3배 빠른 광대역 LTE-A 시대가 본격 개막한다. 다음달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9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광대역 LTE-A 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갤럭시S5 광대역 LTE-A 전용 스마트폰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이미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위한 망구축을 완료한 만큼 삼성전자가 갤럭시S5 광대역 LTE-A 스마트폰을 출시하는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보일 갤럭시S5 광대역 LTE-A 전용 스마트폰은 기존 갤럭시S5 모델에서 초고화질(Q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로 퀄컴 스냅드래곤 805를 채택했다. 현재 광대역 LTE-A를 지원하는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805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향후 제조사들도 퀄컴 스냅드래곤 805를 탑재하는 단말기를 잇따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속도 경쟁으로 가장 당혹스러운 회사는 LG전자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출시된 LG전자 'G3'가 출시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구형 단말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이다. LG G3는 출시 20여일 만에 20만대 판매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이번 광대역 LTE-A 서비스 지원이 불가한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이에 LG전자는 G3에 퀄컴 스냅드래곤 805를 탑재한 G3 광대역 LTE-A 모델을 다음달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존에 G3를 구매한 이용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통 3사가 서비스에 나선 광대역 LTE-A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광대역 20MHz 주파수에 추가로 10MHz 대역을 묶어 최고 225M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는 지 세대 기술이다. 기존 LTE가 이론상 최대 속도 75Mbps를 지원하기 때문에 광대역 LTE-A는 3배의 속도를 보이는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계획에 따라 이통 3사는 7월 1일부터 광대역 LTE-A의 전국망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망구축은 완료한 만큼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다음주께 갤럭시S5 광대역 LTE-A 단말이 출시되면 곧바로 3배 빠른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수 소녀시대 윤아와 에프엑스 설리가 지난해 11월 29일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 열린 '3배 빠른 광대역 LTE-A' 시연 행사에 참석해 기기를 체험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광대역 LTE-A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용자들은 고화질, 고음질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QHD 디스플레이로 기존 풀HD보다 2배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고 150Mbps 속도의 광대역 LTE-A로 75Mbps 속도의 LTE보다 3배 빠른 인터넷 속도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7월부터 광대역 LTE-A 시대가 본격화되지만 이젠 네트워크망을 얼마나 안정성 있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지원 단말기 역시 올 하반기 제조사에서 잇따라 출시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의 선택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lyo0402@metroseoul.co.kr

내가 만든 태양열 자동차 서울 봉화초등학교 학생들이 현대모비스의 찾아가는 주니어 공학교실에 참가해 태양열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말까지 서울·부산·광주를 비롯한 16개 시도에서 총 16회 '이동과학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주니어 공학교실'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대모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호 못하면 망한다

보안등급 공시제 도입 추진

개인정보 보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기업이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보안등급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정보보안등급 공시제는 기업의 보안등급을 평가한 뒤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소비자를 더 의식하고 보안강화를 위한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측은 17일 "올해 하반기 시행될 보안등급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신용평가사가 기업의 신용등급을 매기듯이 민간기관이 기업의 정보보안등급을 평가하는 보안등급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줘 자발적으로 정보보안 강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취지다.

미래부는 기업의 보안 수준을 낱낱이 드러내는 보안등급 공시제가 민간 주도의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도 보안에 대한 기업의 '자가검열'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세부 경영활동 사항을 모두 공개하도록 한 기업공시제가 경영투명성 개선에 도움이 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시 대상으로는 기업별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종류, 정보보안 투자액, 관련 인력 규모,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내부 지침 유무 등이다.

/박상훈기자 [illegible]

매니저 대신 다시 대리로

KT 직급승진제 재도입

KT가 2009년 말 폐지됐던 직급승진제도를 재도입한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 성과 기반의 보상이 가능한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하반에 도입되는 직급승진제도로 기존 매니저 호칭은 사라지게 된다. 대신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차장급, 부장급의 5단계 직급과 호칭이 부활한다.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연구원-전임연구원-선임연구원-책임연구원-수석연구원의 호칭이 되살아난다.

승진은 전문성, 리더십 등 역량 획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직급 별로 3~4년의 최소 승진 소요연수를 설정했지만 인사 후 최소 14년 만에 부장 승진도 가능하다.

하지만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소 승진소요 연수와 무관하게 승진할 수 있는 발탁승진제도를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KT는 직급 변화에 따라 페이밴드(Pay-band)를 기존 4단계에서 5단계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KT는 노사화합을 실현하고자 징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사면을 실시한다. 이는 승진·평가·직책보임 등 인사상 불이익 해제와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발급 시 해당 징계처분 기록이 기재되지 않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원경 KT 경영지원부문 인재경영실장 상무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직급승진제도를 재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직원들이 비전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승희기자 [illegible]

네티즌 제작 라인스티커 "잘팔리네~"

한달만에 매출 17억원

일반인이 만든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 스티커 첫 달 매출이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라인 크리에이터스 마켓'의 매출액은 약 17억원을 기록했다.

판매된 스티커는 총 1200세트로 모두 170만 번의 구매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팔린 10개 스티커의 평균 매출은 약 4700만원. 구매자들이 이 스티커로 주고받은 메시지는 8100만개에 달했다.

라인 크리에이터스 마켓은 전 세계 라인 이용자들이 직접 라인 스티커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일본 본사의 심사를 거친 스티커만 라인 웹스토어에서 판매되며 판매 금액의 절반가량은 제작자에게 돌아간다.

지난 4월 17일부터 등록을 받은 이후 한 달 반 만에 약 8만 명의 누리꾼이 총 1만2000세트 가량의 스티커를 등록했다.

각국의 누리꾼이 제작한 라인 스티커는 현재 일본,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4개 국가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라인 테마나 스티커 등을 살 수 있는 '라인 웹스토어' 서비스가 아직 이들 국가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이다. 스티커 등록은 국적과 상관없이 자유롭다.

/차상훈기자

한화그룹 16개 계열사 임직원 500여명은 7월 말까지 전국 60곳 복지시설 아동들과 함께 친환경 공예품을 제작, 이웃주민과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친환경 나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한화 제공

한화그룹 임직원 친환경나눔 캠페인

한화그룹 16개 계열사, 58개 사업장 임직원 500여명은 7월 말까지 전국 60여 복지시설 아동들과 함께 친환경 공예품을 제작, 이웃주민과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친환경 나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한화 임직원과 복지시설 아동 1000명이 참여해 부채, 손수건, 천연 벌레퇴치제 등 여름용 친환경 물품 6000개를 직접 제작한다. 이후 인근 공원이나 지하철역, 아파트 단지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민들이나 노인, 장애인에게 공예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16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에서는 한화L&C 임직원 참여 아동, 봉사자 등 50여명이 모여 한지를 이용해 부채를 만들고 순면 손수건을 직접 꾸미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25일에는 한화건설 임직원과 등촌종합사회복지관 학생들이 천연 벌레퇴치제를 직접 만든 계획이며, 한화63시티는 영등포종은나무지역아동센터에서 에코백을 제작하는 등 7월 말까지 전국 60곳 복지시설에서 나눔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무용, 공연 등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감성인식을 함양시키도록 하는 '한화예술더하기'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다.

한편 한화는 공연문화 발전을 위한 메세나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클래식 발전을 위해 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를 14년간 단독으로 후원하고 있다. 또 클래식 음악 저변 확대 및 지방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한화 팝&클래식 여행', 세계적 거장을 초청한 고품격 클래식 공연 '한화 클래식' 등도 한화그룹의 대표 메세나 활동이다. /김학권기자

게임·유통 "키덜트족 잡아라"

어린이 감수성 호소 구매력 갖춰
친근감 중요 최대 고객으로 부상

"해피밀 슈퍼마리오 교환 원해요" "미혼 직장인이지만 있지도 않은 아이 핑계 대면서 대량구매 했습니다"

맥도날드의 해피밀 마리오 상품이 성인들에게 폭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어린이 취향을 지닌 어른을 일컫는 '키덜트 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해피밀은 햄버거 세트를 사면 장난감을 증정하는 어린이용 메뉴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16일 두 차례에 걸쳐 판매된 해피밀 마리오 세트를 구하기 위해 전국 맥도날드 매장은 직장인과 대학생으로 붐볐다. 서울역과 왕십리 맥도날드점은 이른 아침부터 직장인 100여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맥도날드는 헬로키티, 스폰지밥 해피밀 시리즈로도 키덜트의 큰 호응을 끌었다.

해피밀 구입에 성공한 가톨릭대학생 정희재(24)씨는 "199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에게 슈퍼 마리오는 최고의 캐릭터"라면서 "어린 시절 추억도 있고 장난감이 귀여워서 갖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어른이지만 때로는 어린이로 돌아가고 싶은 이중적인 마음이 키덜트를 만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감수성과 구매력까지 갖춘 키덜트족은 친근감이 중요한 게임 업계 최대 고객이기도 하다.

키덜트 동향을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한 IT기업 관계자는 "인터넷에 키덜트 커뮤니티가 정말 많이 형성돼 있다"면서 "키덜트 회원들은 언제 어느 기업에서 어떤 상품이 나오는지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규어와 게임기 등 외국에서 희귀 아이템이 먼저 출시되면 해외 직접 구매가 대량으로 이뤄진다"면서 "20~40대 키덜트족들은 1980~1990년대 경제 호황기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 이 시절에 대한 향수가 깊은 것 같다. 그 당시에 게임 산업이 대동하고 유명 만화 캐릭터가 탄생한 것도 원인"이라고 전했다.

포켓몬스터와 슈퍼마리오 게임을 운영하는 박보경 한국닌텐도 주임은 "마리오 시리즈는 어린이부터 40대 이상까지 폭넓은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다"면서 "중장년층에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이미지로 인기"라고 말했다.

/채준환기자 uniquex@metroseoul.co.kr

눈송이 우유빙수 드세요 1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스타광장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눈송이 우유빙수 시식회에서 모델들이 국산 우유 얼음을 재료로 한 빙수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살다 내 집 마련? '옛 말'

전세로 살다가 자가로 옮겨가는 비율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비율은 2005년 53.0%에서 2008년 38.7%, 2010년 26.1%, 2012년 23.2%로 점차 감소했다.

과거에는 전세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거치는 과도기적 주거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계속 전세에 머무르거나 월세로 옮겨가는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몇 년 전부터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인 자가율이 60%대에서 정체돼 있다"며 "자가로 옮겨가야 할 사람들이 전세로 머무르면서 매매시장 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가 거주 비중도 2006년 55.6%에서 2010년 54.2%로 1.2%포인트 낮아졌다. 주택 보급률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지만 내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반대로 줄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천 본부장은 주택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1년 이뤄진 주거실태 조사에서 최근 3년간 전세로 살다가 보증부월세로 전환한 경우를 파악한 결과 전체적인 전환 비율은 8.1%였지만 저소득층의 전환 비율은 이보다 높은 11.9%였다.

전세보다 월세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천 본부장은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주거급여 제도를 탄탄히 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옥기자 psy@metroseoul.co.kr

"과도한 정부개입, 금융허브 걸림돌"

전경련,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 대상 조사

정부가 지난 10년간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외국계 금융사 유치에 나섰지만 성적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국금융의 경쟁력 현황과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상위 10대 금융허브 도시로 런던, 뉴욕, 싱가폴, 토론토, 샌프란시스코, 파리, 스톡홀름, 홍콩, 시드니, 시카고 등이 꼽힌 반면, 서울과 부산은 포함되지 못했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한 과도한 감독을 들었다.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사후보고, 투자자 통보의무 등 과도한 규제 등이 그것이다.

실제 본질적인 업무가 아닌 사옥관리, 조사분석, 법률검토, 회계관리, 문서접수 등의 단순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경우에도 금융당국 보고, 투자자 통보 등에 요구되고 있다.

또 금융상품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과도한 검증도 문제점으로 따올랐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검증 또는 창구지도는 금융업의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실실적으로 가격통제 역할을 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보험료 산출시 사용하는 예정이율에 대한 통제, 감독당국의 과도한 금융상품 사전통제 등은 자유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영업에 걸림돌로 작용해 글로벌 금융사의 국내진출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과도한 공시의무와 중복 공시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 소요도 규제사례로 꼽혔다. 현행 자본시장법령, 금융투자업규정, 외화규정 등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방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시규제가 금융선진국에 비해 과도해 일부 금융사의 경우는 300여 종류 이상의 공시의무를 지게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많은 공시사항 중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운 정도라는 설명이다.

홍성일 팀장은 "글로벌 금융사들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금융규제에 대해 금융허브 달성의 최대 장애로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규제부터 제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kum@

SEOUL & BERLIN

경쟁작공모

제 5회 서울메트로 국제지하철영화제 공모전은
서울과 베를린이 함께합니다

접수기간

2014.05.15~07.31 오후 4시까지

발표

2014.08.12 (화)

출품조건

러닝타임 90초 이하
지하철 상영에 적합한 내용의 작품
사운드와 Dialogue를 배제한 상영이
가능한 작품

출품자격 초단편영화를 만들고 싶은 모~든 분들!

출품방법 릴포트(http://www.reelport.com)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등록 및 영화파일 업로드

시상내역 SeoulMetro Berliner Fenster 1등상 3천유로
SeoulMetro Berliner Fenster 2등상 2천유로
SeoulMetro Berliner Fenster 3등상 1천유로
서울메트로 특별상 1백만원

문의 (사)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지하철영화제팀]
TEL 070-8868-6850
E-mail metrofilm@sesiff.org
SNS facebook.com/metrofilmfest

자세한 사항은 영화제 홈페이지(http://www.smiff.kr)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세요

주최 서울메트로 SESIFF 해외협력 Berliner Fenster 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정사업본부 tbs

"공모전 응모해 해외연수도 가자"

KT·애경·동부·산자부 등 잇단 행사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공모전·해외연수 준비는 언제하나…"

최근 대학생들의 이같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모전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상금은 물론 공모전 수상·해외경험까지 얻을 수 있어 그야말로 1석3조. 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 등의 도움을 받아 '특급혜택'을 제공하는 공모전을 알아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패션협회의 주관으로 제32회 대한민국 패션대전'을 다음달 9일까지 연다. 응모분야는 여성복 남성복으로 국내외 거주하는 한국 국적 보유자면 연령이나 경력 소속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상(대통령상 상금 2000만원) 등 15명에게 상장 상금은 물론 해외패션학원 유학기회 패션업체 인턴십 등을 제공한다.

동부문화재단도 '제1회 동부전자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달 25일까지 진행한다. 풍요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혁신적인 미래 생활 가전 아이디어를 응모하면 된다. 대상 1팀에게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국제소비자전자제품박람회(CES) 연수 혜택, 최우수상 2팀에게는 일본 전자전 연수 기회를 줄 예정이다. 입상자 전원도 입사서류전형 면제와 2차 면접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애경의 헤어스타일 브랜드 '케라시스' 역시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1회 케라시스 마케팅 공모전'을 8월25일까지 연다. 마케팅 부문은 케라시스 브랜드의 제품 라인을 고려한 신제품 연계 프로모션, 디자인 부문은 디자인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디자인 혁신을 반영한 신제품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대상(1개팀)에 뽑히면 상금 500만원과 홍콩 왕복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

◆CES 영화제 관람기회도 제공

목재문화진흥회와 한국목조건축협회는 201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특전으로 캐나다 2주 연수 참가 제자비용을 내걸었다. 계획부문에서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게 되면 200만원의 상금과 상장, 항공료를 포함한 목조건축 2주 연수 참가 제재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본상 수상자 3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 항공료를 제외한 제재비용을 지원한다. 응모작 접수기간은 8월 25~29일.

KT스카이라이프도 'UHD 콘텐츠 창의 공모전'을 연다. 사진 부문은 일반 사진과 스토리가 있는 15컷 이상의 연속 스틸 컷 사진으로 응모할 수 있다. 영상 부문은 장르 소재 제한 없이 3분 이상이면 된다. 작품 접수기간은 10월20~29일.

대상 1명에게는 1000만원 상금과 함께 내년 1월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열리는 '2015 선댄스 영화제' 관람 기회가 주어진다. 영상 부문 최우수상 1명도 350만원 상금과 선댄스 영화제를 직접 즐길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기업 절반 "경쟁사에 인재 빼앗겨"

대리·과장급 유출 심각

"혹시 우리 인재를 빼가는 것은 아닐까."

기업들의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우수인재 확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 절반은 경쟁사에 핵심인재를 빼앗겨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사에 인재를 빼앗긴 경험'을 조사한 결과 48.5%가 '있다'고 답했다.

빼앗긴 인재의 직급은 '대리급'(45.4%,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과장급'(36.1%), '평사원'(17.5%), '부장급'(17.5%) 등의 순이었다.

우수인재 유출로 인한 손실로는 '부서 프로젝트 업무 공백'과 '인재 육성 투자비 손실'이 40.2%(복수응답)씩으로 가장 많이 거론됐다. '기업 핵심정보 유출'(24.7%), '직원사기 저하'(23.7%), '업계 내 경쟁력 약화'(23.7%), '고객 유출 및 관리에 차질'(16.5%), '직원 연쇄 유출 초래'(16.5%), '경쟁사 사업확장 등으로 위협 강화'(1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기업 30.2%는 직원들이 동종업계로 바로 이직하는 것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직을 제한하는 최소 기간으로는 '2년'(28.9%), '1년'(26.3%), '3년'(23.7%), '6개월'(21.1%) 순이다.

하지만 동종업계에서 인재가 이직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62.5%가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터치하면 '귀족알바' 펑펑

커리어 모바일 웹 서비스

임금 7만원 이상의 '귀족 알바'를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찾는 것이 가능해졌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귀족알바 모바일 웹 프로모이션' 서비스(m.mobilealba.career.co.kr)를 17일 오픈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이름, 주소, e메일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원하는 기업에 바로 입사지원할 수 있다.

시즌별로 특화된 고급 알바(판공서, 결혼식 알바 등),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스페셜 단기 알바, 경력에 도움이 될 만한 알바 등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국명기자

스타벅스에서 올레 기가 와이파이 KT가 '올레 기가 와이파이'를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 구축하고 이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올레 기가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음료 사이즈업 혜택, 스타벅스 선불카드 등을 증정한다. /KT 제공

상사 눈치 때문에…

직장인 절반 "아파도 참고 일한다"

직장인 절반이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벼룩시장구인구직이 20~40대 직장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몸이 안좋아도 웬만하면 참고 견딘다'고 답했다.

'약국에서 약만 사서 먹는다'도 23.1%로 나타났고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는 22.7%에 불과했다.

아파도 쉬거나 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 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21.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상사의 눈치가 보이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까봐'(19.5%), '아픈 것은 참을 만해서'(16.7%), '시간이 지나면 자연치유 되니까'(15.5%),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봐'(15.1%)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직장인 67.7%는 병원을 찾지 않아 병을 더 키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국명기자

남성 갱년기? '미스터 활력'이라면 OK!

'MR-10민들레등복합추출물' 함유한 네이처케어 '미스터 활력' 인기

40대 후반 자영업자 이성준씨는 요즘 상당히 무기력하다. 항상 자신감이 넘쳤지만 최근에는 자꾸 짜증이 나고 의욕이 떨어질 뿐 아니라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곤 한다. 말로만 듣던 '남성 갱년기'가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아닌지 걱정이 크다.

40~5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신체에 크고 작은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이를 '갱년기'라 부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갱년기가 ▲월경 정지 ▲안면 홍조 ▲빈혈 ▲우울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여성 질병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갱년기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남성 갱년기, 자기 진단이 중요

여성들은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갱년기 증상을 금방 알아챌 수 있다. 반면 남성은 특별한 시작점 없이 호르몬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갱년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갱년기를 더 큰 병으로 발전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갱년기 자가 진단의 중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미국 세인트루이스 의대에서는 'ADAM 남성 갱년기 현상 평가지'를 개발해 남성들 스스로 갱년기가 아닌지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운동하고 건강기능식품 섭취해야

사실 국내 40대 남성 3명 가운데 1명, 50대 남성은 2명 가운데 1명 꼴로 남성 갱년기를 겪는다. ▲신체능력 저하 ▲근골격 약화 ▲우울감 ▲성기능 감소 등이 주요 증상인데 중요한 것은 갱년기 증상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또 이런 증상은 과도한 음주·흡연·스트레스 등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면 다른 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평소 술과 담배를 삼가고 가벼운 운동과 함께 식이조절을 하며 남성 호르몬 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 최초 남성갱년기 개선물질 인정

사실 우리나라 남성들도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 보양식을 비롯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다. 그중 최근 연구를 통해 남성 갱년기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다.

바로 'MR-10민들레등복합추출물'이다. 이 성분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남성 갱년기에 대한 기능성을 국내 최초로 인정받았다.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으며 실제 임상시험 결과 이 성분이 남성 호르몬 및 남성 갱년기 현상 호소율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글로벌 생활용품 브랜드 타파웨어 브랜즈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네이처케어(NaturCare)가 출시한 '미스터 활력'이 인기를 얻고 있다. '미스터 활력'은 MR-민들레등복합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신체능력 저하, 근골격 약화, 우울감, 성기능 감소 등 갱년기 주요 증상을 완화시켜준다.

게다가 남미 페루에서 정력제로 알려진 '마카'와 기운을 보하는 강장제로 잘 알려진 복분자,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진 폴리페놀을 다량 함유한 포도 껍질 추출물 등 신체에 활력을 더해주는 다양한 성분도 포함하고 있다.

네이처케어의 미스터 활력은 1일 2회 1캡슐씩 물과 함께 간편히 섭취할 수 있으며 전국 타파웨어 대리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제품 문의: 타파웨어 브랜즈 홈페이지(www.tupperwarebrands.co.kr), 고객상담실(080-023-8811)

/황재용기자

나도 혹시 남성 갱년기?
자가 테스트로 확인해 보세요.
(ADAM 남성 갱년기 현상 평가)

- ☐ 1 성욕 감퇴가 있습니까?
- ☐ 2 기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십니까?
- ☐ 3 키가 줄었습니까?
- ☐ 4 체력이나 지구력에 감퇴가 있습니까?
- ☐ 5 삶의 즐거움이 줄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 6 울적하거나 괜히 짜증이 나십니까?
- ☐ 7 발기가 예전보다 덜 강합니까?
- ☐ 8 운동 능력이 최근에 떨어진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 9 저녁식사 후 바로 잠에 빠져드십니까?
- ☐ 10 일의 수행능력이 최근에 떨어졌습니까?

위 설문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거나 1번과 7번을 골랐다면 남성 갱년기를 의심해보아야 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소통 단절 '노인성 난청' 관리하자

보청기 착용하면 진행 속도 늦출 수 있어

사람의 청력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떨어진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이런 노인성 난청을 방치할수록 청력 저하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이다. 즉 지속적인 청력관리와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가족과의 대화로 소외감 없애야

노인성 난청이 시작되면 높은 음을 담당하는 고주파 신경에 손상이 먼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스 ▲츠 ▲트 ▲트 ▲프와 같은 자음, 여자의 목소리 등 고주파 영역대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고주파 영역대 소리를 들을 일은 흔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성 난청을 모르고 난청 치료 및 예방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다.

더욱이 이미 진행된 노인성 난청을 소홀히 하면 청력을 잃을 수 있으며 치매까지 질환이 발전할 수도 있다. 실제 미국의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난청이 있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은 정상인 사람보다 2~5배 높다.

게다가 노년기에 청력이 떨어지면 사람들과의 대화가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대화하는 것을 점점 피하게 된다. 사람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통해 노인성 난청의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회복은 힘들지만 청력을 악화시키는 위험 요소들을 멀리해 난청의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다. 시끄러운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의 장시간 노출을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스트레스를 줄이고 과음 등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김장춘 이어케어네트워크 강동연세이비인후과 원장은 "난청 환자에게는 가족들의 생활이 중요하다. 환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화를 자주 시도하고 천천히 얘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올바른 처방을 통해 청력에 맞는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된다"고 덧붙였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흉터 개선 습윤밴드 '하이맘 스카' 내놔

JW중외제약(대표 한성권)이 흉터 개선에 효과적인 습윤밴드 '하이맘 스카'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

하이맘 스카는 실리콘 겔 성분을 사용해 흉터가 생긴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과 수분을 공급하면서 비정상적인 피부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제품이다.

회사는 제품이 제왕절개나 갑상선 수술 환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며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섬유원단을 통해 흉터의 착색을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축성이 뛰어나 흉터가 남기 쉬운 턱이나 무릎, 팔꿈치 등 굴곡진 부위에도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다.

윤범진 JW중외제약 헬스케어사업본부장은 "하이맘 스카는 제왕절개, 갑상선 수술 등으로 생긴 흉터 개선에 최적화된 신개념 밴드"라며 "기존에 출시된 상처 치료용 습윤밴드 '하이맘 밴드'와 함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한국먼디파마, 소아암 환자 사회공헌 활동

한국먼디파마(대표 이종호)가 창립 16주년을 기념해 지난주 일주일을 '한국먼디파마 희망 주간'으로 설정하고 한국소아암재단(이사장 홍태선)과 함께 소아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먼저 지난해에도 실시한 직원 참여형 자선 기금 프로그램인 '희망 저금통' 활동을 통해 희망나눔 기금 500만원을 모아 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했다. 또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아암 환자와 그 가족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먼디파마 희망 꾸러미'와 가정에서 상비해야 하는 구급상자를 소아암 환자 가정에 전달했다.

이종호 한국먼디파마 사장은 "국내 통증 치료 분야를 선도하는 한국먼디파마가 지난해에 이어 소아암 환자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월드컵 한정 제품 출시 붐

뷰티업계, 대표팀 선전 기원

뷰티업계에서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며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존슨앤드존슨의 뉴트로지나에서는 선케어 월드컵 스페셜 세트(사진)를 이마트에서 단독 출시했다.

지난 13일 한정 출시된 랑콤의 '압솔뤼 벨루어(L Absolu Velour) 패션 레드(Passion Red)'는 한국 응원단의 열정을 담은 제품이다. 압솔뤼 벨루어는 부드럽고 폭신한 텍스처를 가진 립 제품으로 뛰어난 발색력과 지속력을 갖췄다. 랑콤이 새로 선보이는 패션 레드 색상은 무광의 화사한 레드 컬러로 지난해 12월 한정으로 출시돼 큰 인기를 끌어 품절됐다가 올 여름 한국만을 위해 재출시됐다.

베네피트코스메틱 키스 콜렉터 컬러용 '의 새 컬러 '더 데빌(The Devil)'을 선보였다. 더 데빌은 오렌지 빛이 감도는 짙은 레드 컬러로 붉은 악마의 끝없는 열정을 상징한다.

아이오페는 에어쿠션의 에어퍼프에 축구공 모양을 담은 리미티드 에디션 퍼프 3종을 한정 판매한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여성용 '에어쿠션 XP'를 2개 구매 시 리미티드 에디션 퍼프를 포함한 총 3개의 퍼프와 5000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황재용 기자 hsune0404@

밤샘 응원의 또다른 '덤'

길거리 샘플링 행사 풍성, 한국전 당일 무료 커피도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나라 대표팀의 예선 경기가 18일 오전 7시 열린다. 대한민국 경기를 앞두고 각 기업체들이 길거리 샘플링 뿐만 아니라 응원 장소 제공까지 다양한 마케팅을 벌인다.

코카콜라 '길거리 샘플링' 모습 코카콜라 제공

월드컵 응원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늦은 시간 단체 응원에 나선 축구 팬들의 출출함을 해소하기 위해 응원 유도 및 샘플링 행사에 나선 기업들도 눈에 띈다.

코카콜라는 18일 러시아전을 시작으로 경기 때 마다 브라질 월드컵의 대한민국 경기 응원전이 펼쳐지는 곳을 직접 찾아가 대규모 길거리 샘플링과 곡곡댄스 응원 이벤트를 벌인다.

이번 이벤트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이어 진행되는 대규모 샘플링 행사로 코카콜라와 대영의 마테자 등 총 15만개의 시원한 음료를 무료 증정한다. 곡곡댄스 응원 이벤트로 다양한 즐거움을 전하며 월드컵 응원 열기 고조에 앞장 설 예정이다.

감자칩 브랜드 '프링글스'도 18일과 23일 서울 시내 거리 응원 장소를 찾아 프링글스 포켓팩(47g) 게릴라 샘플링 이벤트를 벌인다. 샘플링은 경기 전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할 예정이다. 18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23일엔 강남역 인근에서 열린다. 희망자는 휴대폰으로 프링글스 코리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면 포켓팩을 받을 수 있다. 총 2400개가 응원간식으로 제공된다.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맥도날드도 18일, 23일, 27일에 밤샘 응원한 고객들을 위해 맥도날드 아이스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리 커피 데이' 이벤트를 벌인다. 해당일 오전 6~9시에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하면 제한 없이 아이스커피를 받을 수 있다. /정해림 기자 press@metroseoul.co.kr

이마트, 우승 기원 50% 할인

월드컵경기 승리 때 당일만

이마트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1승을 염원하며 특별 할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18일 새벽 치러지는 1차전 러시아전에서 승리하면 18일 하루동안 신선먹거리부터 패션·가전 상품까지 총 250여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는 '단 하루 행사'를 전점에서 벌인다.

먼저 응원 먹거리 관련한 상품들은 단 하루 최대 50% 할인 판매에 돌입한다. 한우등심 전 등급을 30% 할인 판매하고, 흰다리새우(50미 사이즈)는 40% 할인한 3900원에 선보인다.

또 대추 방울토마토(1kg+1kg) 기획팩을 30% 추가 할인해 6930원에 판매하고 한가득 새송이 버섯은 50% 할인가격인 2980원에 선보인다.

이와 함께 응원먹거리로 빠지지 않는 야식메뉴도 구이용 모듬소시지인 부어스트 컴비네이션(385g)을 4170원에 판매한다. 냉동 새우튀김인 델에이드 튀김용 통새우(250g)는 30% 할인한 3480원에 판매한다.

수입맥주와 음료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밀러 베스트 프리미엄'(355ml×6입)을 15%가량 가격을 낮춰 국산 맥주가격 수준인 6600원에 판매하고 롯데칠성과 코카콜라의 인기 음료를 골라담아 약 40% 할인 가격인 2500원에 마련했다. /유현희 기자

연어 먹고 대~한민국 사조해표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브라질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승을 기원하며 '100% 자연산 사조연어 먹고 대한민국 첫승 기원' 시민행사 및 소비자 행사를 벌였다. 이날 행사는 사조해표의 100% 자연산 사조연어만 월볼륨적 만든 연어김밥과 연어샐러드를 알리고 18일 대한민국 첫 경기의 승리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로 꾸며졌다. /손진영 기자 son@

휴가철 여행가방 신제품 봇물 출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국내외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용 캐리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을 접목한 가볍고 튼튼한 여행 가방이 속속 출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튼튼하고 가벼운 게 최고

쌤소나이트가 독자적으로 선보인 커브(CURV) 소재는 100% 폴리프로필렌을 얇은 시트 형태로 늘인 후 모서지럼 여러 겹으로 직조해 만든 신소재다.

이 소재는 강도가 세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탁월하다고 업체측은 설명했다. 플라스틱이 아닌 섬유조직이기 때문에 탄성이 좋아 주로 스키용품이나 자동차 하부 보호대 등에 사용되는 소재이다.

투미는 FXT 방탄 나일론 소재를 사용해 캐리어를 제작하는 게 특징이다. 방탄복에 쓰이는 이 소재는 독특한 조직구조와 코팅 기술이 접목돼 외부 스크래치에 강하고 생활 방수 효과도 있다.

리모와의 알루미늄 케이스는 항공기 알루미늄 소재에서 영감을 받아 안전하게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 캐리어다. 이 캐리어는 방탄유리 소재의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용 가방 제작에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다.

◆짐 크기에 따른 사이즈 선택도 가능

가볍고 심플한 디자인을 원한다면 이스트팩 캐리어를 추천한다. 깔끔한 스타일로 디자인된 이 캐리어는 S·M·L 등 다양한 사이즈로 선보여 용도와 여행 일정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또한 전면과 내부에 다양한 수납공간이 눈에 띈다. 상단부분 뿐만 아니라 측면과 정면부분까지 손잡이가 있어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학철 기자 kimc0604@

휘닉스아일랜드, '민트 프로포즈' 이벤트

고품격 해양복합 리조트 휘닉스아일랜드가 15일부터 '민트 프로포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당신의 사랑을 응원합니다'라는 콘셉트로 진행되어 응모를 통해 당첨된 다섯 커플에게 프로포즈와 프라이빗 웨딩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민트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를 진행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들은 휘닉스아일랜드 로비에서부터 프로포즈 장소인 민트 레스토랑까지 꽃마차로 안내받게된다.

연출 그림

이벤트 응모를 원하는 고객들은 오는 30일까지 휘닉스아일랜드 홈페이지(http://www.phoenixisland.co.kr/)를 통해 커플의 사랑 이야기와 사진을 게재하면 된다. /김학철 기자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 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화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가려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주)의 개바속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기 바라는 부모님들의 분위기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경원씨(5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회구 적이 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다 똑같나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얻었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세월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어떨때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에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 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년 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1 원칙의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가연타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

올해 6년 연속 시청각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Lee Season Veita 가연결혼정보 서울 본사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 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본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

'수분 면도기'로 깔끔 피부 뽐내자

모이스춰라이징 젤박스 장착 쉬크 하이드로 시리즈 인기

한겨울이나 추운 겨울 뿐만 아니라 덥고 습한 날씨에도 피부가 건조해 면도할 때마다 피부에 상처가 난다면 쉬크 하이드로 시리즈 면도기를 주목해보자.

'수분면도기'라는 별명을 지닌 쉬크 하이드로 라인 면도기에는 모이스춰라이징 젤박스가 장착돼 있어 피부 자극을 줄여주고 보습젤이 피부에 수분을 보충한다.

지난 1월 출시된 '하이드로 그루머'를 포함해 '하이드로5 파워셀렉트', '하이드로5', '하이드로3'까지 총 4개의 종류가 있어 피부 타입과 수염 스타일, 굵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중복합성 피부, 수염 기르는 타입

쉬크 하이드로 그루머는 면도 중 수분을 유지하며 피부 트러블을 최소화하고 전동 트리머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면도기다.

수딩 알로에 베라, 비타민E를 다량 함유한 모이스춰라이징 젤박스 속 보습젤로 피부 자극을 줄여 주고 촉촉한 면도를 가능하게 한다.

면도기 하단에 길이를 조절하는 조절빗이 탑재돼 수염을 3단계 길이로 조절하고 균일하게 정리할 수 있다.

특히 탈부착이 가능한 이 조절빗은 세척을 깔끔하게 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보통 피부, 수염이 굵은 타입

하이드로5 파워셀렉트는 3단계의 미세 진동 기능을 도입한 5중날 방식 면도기다.

한 가지 진동으로 오히려 피부에 긴장을 줄 수 있는 기존 파워 면도기와 달리 하이드로5 파워 셀렉트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진동 세기를 원터치 버튼으로 간편하게 조절 가능하다. 때문에 다양한 피부 타입과 면도 부위에 따라 자신에게 꼭 맞는 진동으로 최적화된 저자극 밀착면도를 경험할 수 있다.

◆중복합성 피부, 수염굵기 보통 타입

하이드로5는 기존의 윤활밴드를 모이스춰라이징 젤박스로 교체한 5중날 면도기로 모이스춰라이징 젤박스 속 보습젤이 물에 닿으면 액체로 변하면서 매끄러운 면도를 돕는다.

젤박스를 탑재한 하이드로는 면도 후에도 수분크림을 바른 것과 동일한 촉촉함을 피부에 전달한다. 일반 윤활밴드보다 최대 2배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또 특허 받은 스킨가드를 면도날 사이에 장착해 피부굴곡을 2분의 1로 줄여 자극 없는 부드러운 면도를 완성한다.

◆요철 피부, 수염굵기가 얇다면

하이드로3는 스킨케어 기능을 면도기에 추가해 촉촉한 보습면도를 할 수 있다.

특허 받은 새로운 면도날 설계구조를 도입해 피부자극이 거의 없다. 특히 하이드로3의 3중날은 부드럽게 면도할 수 있어 여드름이 많은 요철피부의 남성에게 적합하다.

면도날의 교환시기를 알려주는 기능을 갖춰 모이스춰라이징 젤박스에 빈칸이 생기면 날을 교환하면 된다.

/정혜민 기자 hjjung0404@metroseoul.co.kr

왼쪽부터 쉬크 하이드로 그루머, 하이드로5 파워셀렉트, 하이드로5, 하이드로3. /쉬크 제공

쾌적 응원 돕는 쿨링 아이템 어떤게…

휴대 간편 보냉 기능·냉감 효과 제품 '주목'

브라질 월드컵 개막과 함께 곳곳에서 응원 준비가 한창이다. 이에 따라 여름철 더위 속도에 쾌적한 응원을 도와주는 다양한 쿨링 아이템들이 주목 받고 있다.

보온병 브랜드 써모스 코리아에서 선보인 'JDA'(사진)는 보온병과 동일한 원리를 적용한 진공단열 컵이다. 시원한 음료를 담았을 때 장시간 시원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얼음을 넣어도 결로현상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레는 목덜미를 시원하게 해주는 '넥 쿨러'를 출시했다. 물에 1~2분 정도 담가두면 아이스 폴리머를 팽창시켜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아웃도어 제품이다. 땀을 흘리면 원단에 고착된 자일리톨 성분이 인체의 수분과 결합해 흡열 반응을 일으켜 열감을 없애주는 원리가 적용됐다.

최근 출시된 동아제약의 의류용 쿨링 스프레이 '셔츠쿨'은 옷에 뿌리면 시원한 냉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약 1~2시간 정도 냉감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경기 시작 전 뿌리면 응원 내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모닝글로리의 '쿨링 젠지 아이스팩'은 제품에 편지를 가하면 제품 내부의 작은 알맹이가 액상으로 변해 차가워지는 아이템이다. 휴대가 간편하고 빠르게 더위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혜민 기자

"고객 소통 친밀감 높여라"

패션업계, 온라인몰 웹툰에 '등산송'까지

최근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친밀감을 높이려는 패션 업계의 이색 마케팅 전술이 눈에 띈다. 고객 참여 유도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핵심 타겟층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그들의 취향을 적극 반영한 콘텐츠를 유치하는 등 방법도 다양하다.

지난 11일과 12일, 젊은이의 거리 홍대 인근에 이색 차량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소비자를 직접 찾아나선 무빙 스튜디오로 써코니에서 젊은층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품을 알리고자 기획한 것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전개하는 브랜드 시리즈는 공식 온라인 편집몰인 바이시리즈에서 지난 11일부터 웹툰을 연재한다.

어런세, 하일권, 정준영 등 내로라하는 작가의 웹툰을 온라인 몰에서 연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쇼핑이나 상품 관련 정보만을 제공했던 기존 온라인 몰의 콘텐츠가 10대부터 40대까지 거의 모든 세대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문화 콘텐츠인 웹툰을 통해 재미와 전문성을 갖춘 매체로 확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귀를 즐겁게하는 홍보도 있다. 윤도현이 이끄는 록밴드 YB가 '국민 등산송'으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다.

YB는 아웃도어 브랜드 젬프라인과 함께 만든 CM송을 공개했는데 일명 '국민 등산송'으로 불리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노래는 흥겹고 힘을 주는 가사를 통해 지친 현대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응원 메시지를 담았다.

지난 13일 공개된 이 노래는 오는 7월 14일까지 이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김학철 기자 kimc0514@

겟투비, 주름 개선 화장품 출시

14일 사용 후 불만족땐 환불 서비스 실시

겟투비(Get2B 대표 박종규, www.get2b.co.kr)는 1년 6개월에 걸친 기술 연구와 샘플링 테스트를 통해 만들어낸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시데이크 링클프리 라인(사진)을 선보였다.

시데이크(펩독 유사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돼 기존 주름 개선 화장품보다 피부에 잘 스며들어 사용 후 2주가 지나면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또 탄력과 미백 기능도 함께 들어있어 피부재생 주기인 28일이 지나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업체는 14일 사용 후 불만족 시 100% 환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겟투비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여주는 주름 개선 화장품이 아닌 피부의 건강을 생각해 좋은 성분으로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겟투비 시데이크 링클 프리 라인은 웨딩정보커뮤니티 '미스숑의 웨딩다이어리'(http://cafe.naver.com/ssmmissy)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본질을 통한 혁신의 힘

전체의 유익한 변화 위한 통찰 필요

현재 세계는 식량·자원 등 부족, 이상 기후, 절대 다수의 빈곤, 근본주의와 테러 등 다양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 구조와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책 역시 그런 주장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 혼란의 시대가 낡은 문명과 나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기존 사회는 ▲금융경제와 실물경제 간의 괴리 ▲무한한 성장 수요와 유한한 지구 자원 간의 괴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괴리 ▲국내 총생산과 복지의 괴리 등 총 8가지의 구조적 괴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괴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수면 아래 구조적 괴리와 그 구조를 유지해온 사람들의 자아 중심의 세계관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U프로세스를 통해 관습

본질에서 답을 찾아라
오토 샤머 카트린 카우퍼/티핑포인트

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U프로세스는 저자가 150명의 리더들을 인터뷰하던 중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면 공간'의 작용을 알게 되면서 정리한 개념이다. 내면의 무언가가 변화하면서 몰입을 경험하게 되고, 시야가 열리면서 성공적이고 대대적인 변화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한 U프로세스의 메커니즘은 일직선적 서양의 사고방식과 순환형 곡선형인 동양의 사고방식이 조합된 것이다. 우선 바닥에 도달하기 위해 U자를 따라 내려가며 생각·가슴·의지를 활짝 연다. 바닥에 머물며 나와 사회, 나와 타인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에 대해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며 내적 깨달음을 찾는다. 그 다음에는 U자의 반대쪽을 따라 올라가며 깨달음을 즉시 행동으로 옮겨 가능성을 탐색한다.

U프로세스는 본질로 들어가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통찰의 기술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효과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보완에 필요한 점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효과가 없다면 다시 U자를 따라 내려가면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혁신과 함께 일부가 아닌 전체에 유익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정혜인기자 hjjung0404@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에세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
브렌던 리힐리/시그마

…에 대한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를 돌보는 내과 의사가 환자의 삶의 마지막 순간과 맞닥뜨렸을 때 극복하기 위해 행했던 노력들을 담아냈다. 시장 논리가 우선시 되는 현대 의료 환경에서도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환자와 진실 어린 고민을 나누는 저자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인간애와 소명의식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소설
아무도 없는 밤에 피는
사쿠라기 시노/머트처

자연 환경은 혹독하고 지역 경제는 쇠퇴한 홋카이도를 배경으로 하는 7편의 단편을 묶었다. 홋카이도 특유의 황량한 풍경 속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어찌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외롭고 복잡한 사람을 관능적이면서도 메마른 문체로 그리고 있다. 제149회 나오키 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건강
아이 시크릿 닥터
리사 랭킨/핫지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여성들은 아직도 죄책감, 수치심 등을 느끼며 산부인과의 문제를 넘기 며 려워 한다. 이 책은 섹스에서 폐경까지 여성의 생애 동안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는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들이 산부인과에서조차 묻지 못했던 250여개의 질문들에 대해 친구처럼 솔직하고 친절하게 답해준다.

책 속 한 컷 — 월드컵 응원도 정신력이다 '마음만은 브라질로'

월드컵 축제가 한창이다. 브라질 현지에는 연일 경기마다 만원 관중으로 응원 열기가 뜨겁다. 한국 대표팀은 18일 오전 7시 러시아를 상대로 조별리그 첫 경기를 벌인다. 이른 아침 경기라 국내 팬들은 응원에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도 마음과 정신만은 브라질로 향해 있어야겠다. 러시아 축구협회장은 약 5000여명의 자국 팬이 4만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브라질 쿠이아바의 판타나우 경기장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응원도 정신력이다. 브라질 사진 한 장 걸어 놓고 '대~한민국'을 외쳐보자.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길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한다. - '남미 낙원을 따라 떠난다'(신혜윤/교보문고) 중 -

/정혜인기자 hjjung0404

'2014 서울국제도서전' 개막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고영수)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후원하는 '2014 서울국제도서전'이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책으로 만나는 세상, 책으로 꿈꾸는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주빈국 오만과 첫 포커스국으로 참여하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전 세계 23개국의 국내외 출판사 369개사가 참가한다.

'신밧드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오만은 오만 문화와 문학·경제·여행지 등을 소개한 60여종의 도서 전시를 통해 아랍권의 이색적인 출판 문화를 선보인다. 오만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베나 체험관'과 오만 왕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등도 마련됐다. 한국 이탈리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참여하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의 예술·건축·디자인·소설·평론 등 최소 가치가 있는 서적 300여 권을 전시한다. 또 교수이자 작가·문학 평론가인 발터 시티와 스릴러 범죄 소설가 잔카를로 데카탈도가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저자와의 대화'에서는 조정래, 은희경, 성석제, 신경림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총 22명이 독자들과 만난다. /정혜인기자

애플, 구글 이기려 삼성과 대리전?

화제의 책

도그파이트
프레드 보겔스타인/와이즈베리

2011년부터 글로벌 비즈니스 업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변정 공방은 삼성을 상대로 한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소송은 세계 1위를 다투는 IT 공룡들의 당연한 행보로 보여졌다.

하지만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며 화제를 모은 인물이 있다. 바로 이 책의 저자 '프레드 보겔스타인'이다. 그는 삼성을 상대로 한 애플의 소송이 사실 다른 속내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애플이 궁극의 라이벌인 구글을 견제하기 위해 삼성과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IT 소프트웨어 강자 구글의 라이벌은 마이크로소프트이고, IT 하드웨어의 강자 애플의 라이벌은 삼성이다. 하지만 저자는 애플의 궁극의 맞수는 구글임을 강조한다.

이에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양사가 절친한 조력자에서 철천지원수로 돌변하는 과정, 모바일 패권을 둘러싸고 벌이는 음모와 배신, 그리고 21세기 최대 비즈니스 혁명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모바일 플랫폼 전쟁을 무협소설처럼 묘사하며 애플과 구글의 역사를 이기한다. 그동안 보도되지 않은 구글과 애플의 전설적인 일화, 저자가 16년간 애플과 구글의 수많은 실무자를 인터뷰한 내용이 이 싸움의 역사를 뒷받침한다.

과연 모바일 전쟁의 승자는 누구일까. /황재용기자 hsoul38@

국내 출판시장 침체 가속

독서마니아·10대 연령층 하락 현상 '심각'

올해 상반기 국내 출판계는 계속된 경제불황과 세월호 참몰 사고, 지방선거 등 잇따른 사회적 이슈들로 인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보문고가 발표한 '2014년 상반기 도서판매 동향'에 따르면 '도서 마니아'로 불리는 매출 상위 20%내 독자들의 신장율은 2012년 1.2%에서 지난해 1.6%로 다소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7.5%를 기록하며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래의 독서 인구인 10대 연령층 독자들의 점유율은 급격히 감소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10대의 판매권수 점유율은 2012년 5.5%에서 지난해 4.7%, 올해는 4.1%까지 추락했다.

반면에 20대는 2012년 30.3%에서 지난해 28.3%까지 큰 폭으로 추락했다가 올해 미디어셀러에 힘입어 29.7%로 반전에 성공했다. 50~60대 이상 독자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분야별 판매 현황은 유아·역사문화·여행 분야의 신장세가 두드러졌고 취업 수험서의 신장세가 이어졌다. 사·에세이·자기계발 분야는 대폭 감소했다. /황재용기자 anrmsgh

음악 감성 우정으로 뭉친 플라이투더스카이

"깊어진 만큼 하늘 높이 비상"

5년 만에 돌아온 플라이투더스카이가 한층 깊어졌다. 음악적 감성은 물론 서로에 대한 우정, 팬들에 대한 믿음이 그렇다.

덕분에 지난달 20일 발표한 정규 9집 '컨티뉴엄'은 온라인 음원차트 1위는 물론 엠넷 '엠카운트다운', SBS '인기가요' 등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며 변함없는 저력을 입증했다. 한때 불화설이 있었지만 오랜만에 돌아온 이들은 완벽한 하모니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고 있다. 팀명처럼 하늘 높이 비상하고 있다.

◆ 해체 됐었는데 재결합?

플라이투더스카이는 한때 해체설과 불화설로 몸살을 앓았다. 이들은 1999년 12월 1집 '데이바이데이'로 데뷔해 지난달 9집을 선보이기까지 해체는 없었다. 지난 2009년 SBS '절친노트'에 출연하면서 논란에서 가장 사실화 되는 것처럼 비춰졌다. 그러나 이들은 개별 활동과 환희의 군복무로 오랜기간 함께 할 수 없었을 뿐이다.

"사실 방송을 통해 화해를 한 것 자체가 어이없고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우리를 해체한 것처럼 만들어 속상했어요. 개인 활동이 생각보다 길어진 것은 뮤지컬과 솔로 가수로 개인 영역을 넓히다보니 예상보다 늦어졌을 뿐이죠. 평소에도 함께 와인을 마시며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요."

9집 '컨티뉴엄'을 발매한 것도 이같은 만남 속에서 이뤄졌다. 꾸준히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본격적으로 앨범을 구상한 것은 환희가 전역 6개월을 앞둔 시점이었다.

> 바쁘다보니 앨범발표늦어져
> 서로 다른 보이스 조합 차별화
> 원타임·솔리드 컴백 했으면

"팬들과 지인에게 플라이투더스카이는 언제 나오냐는 말을 자주 들었고 2~3년 전부터 마음속으로 앨범을 준비했어요. 덕분에 환희가 전역하고 곧바로 앨범 작업에 들어갔죠. 첫 녹음 때는 소름끼칠 정도로 행복했어요."

◆ 혼자보다 둘이라 뿌듯해

정규 9집은 타이틀곡 '너를 너를 너를'부터 '나목소리', '전화하지 말아요' 등 10곡이 수록됐다. 환희와 브라이언의 파워풀하면서도 감성 깊은 보컬을 느낄 수 있다. 또 이들이 듀엣을 이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앨범이다.

환희는 "기존 남성 듀엣과 달리 우리는 서로 가지고 있는 목소리 톤 자체가 다르다. 그게 차별점인 것 같다"며 "전혀 다른 보이스지만 함께 했을 때 사운드가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브라이언은 "초반에 녹음할 때 우리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예전과는 달리 음색이 조금씩 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차례 맞춰보면서 데뷔 초 느낌을 확인했다"며 "이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렸구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6~8일 개최된 컴백 단독 콘서트는 티켓 오픈 수분 만에 매진됐다. 아이돌 그룹이 장악한 가요계에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오랜만에 내놓은 앨범과 콘서트라 두려움이 앞섰죠. 목표는 1등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앨범 낼 때 '역시 플라이투더스카이구나, 이 둘이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정도면 됐어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반응도 좋아서 놀랐어요. 콘서트 때도 자리를 꽉 채워주고 노래도 다 따라 불러줘서 감동받아 눈물 흘릴 뻔 했죠."

◆ 원타임 컴백 성공할 듯

가수 임창정·서태지·백지영에 이어 이들도 오랜만에 돌아온 컴백 가수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최근 가요계 움직임을 보면 9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가수들이 속속 컴백 소식을 알리고 있다.

컴백하면 성공할 것 같은 가수에 대해 브라이언은 "서태지와 아이들과 솔리드가 나오면 좋은 음악이 나올 것 같다. 컴백하기 힘들겠지만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타임은 컴백하면 성공할 것 같다. 활동 당시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을 했고 팬도 많았다. 멤버도 다들 실력파라 컴백하면 정말 잘 할 것 같고 대중도 좋아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정성욱기자 ysw@metroseoul.co.kr 디자인/원승미

"사랑은 끝나고 감정만 남았다"

LOVE PAWNSHOP

tcast

월드컵 응원 연예인이 앞장

최장신 그룹 루커스 데뷔

평균 신장 184.4㎝의 남성 아이돌 그룹 루커스(사진)가 다음달 데뷔한다.

루커스는 지난 7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14 드림콘서트'에서 데뷔곡 '기가 막혀'를 처음 불렀다.

이날 다섯 멤버는 큰 키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스타일리스트가 리더 제이원(186㎝)·동현(184㎝)·준이(183㎝)·경진(181㎝)·진원(186㎝)의 큰 키와 긴 팔다리 때문에 외국인 모델이 입었던 의상을 직접 구해 수선을 해야 할 정도였다.

'기가 막혀'는 에셈뮤직의 프로듀서 스티븐 리와 캐스타 조나스 브라더스·마일리 사이러스의 작곡가로 알려진 지미 리처드, 덴마크의 프로덕션 팀 GL 뮤직이 합작한 곡이다. 강렬한 클럽 비트가 인상적이다. 믹싱 작업은 미국 동부 뉴저지에서 진행됐다. 월드스타들의 음반을 만드는 켄루이스가 직접 참여했다.

루커스의 소속사 퀀 엔터테인먼트는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인 팀"이라며 "외모는 물론 노래 실력도 뛰어나 보고 듣는 재미를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신효진기자

'김도훈 제작' 마마무 데뷔

걸그룹 마마무(솔라 문별 휘인 화사)가 18일 정오에 타이틀곡 '미스터 애매모호'가 수록된 데뷔 앨범을 발표한다.

마마무는 소유X정기고의 '썸', 씨엔블루의 '외톨이야', 휘성의 '위드 미', 이승기의 '결혼해 줄래' 등의 히트곡을 작업한 김도훈 프로듀서(사진 오른쪽)가 만든 첫 걸그룹이다.

네 멤버는 다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했다. '미스터 애매모호'의 안무를 직접 구성했으며 멤버 중 화사는 데뷔 앨범에 자작곡을 수록했다.

뮤직비디오 출연진도 화려하다. 휘성·케이윌·범키·라이머·정준영·씨엔블루의 이종현 등이 참여했다.

마마무는 올 초부터 꾸준히 대중과 소통했다. '범키와 '행복하지마'', 케이윌·휘성과 '썸남썸녀' 곡 발표하며 가창력을 선보였다.

앞서 17일 마마무는 공식 트위터에 "와우~ 이제 정말 하루 남았네요. 관심 갖고 기다려 주신 분들 감사 드립니다. 저희 마마무 내일부터 드디어 '미스터 애매모호' 찾아 나섭니다"라며 데뷔를 하루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전했다. /신효진기자

지상파 3사 러시아전 거리중계
싸이는 강남서 특별 공연 펼쳐

지상파 3사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중계 전쟁이 거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MBC·KBS·SBS는 18일 오전 7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조별리그 첫 경기인 러시아전 거리 응원에 나서 승리를 기원한다.

MBC는 '무한도전 응원단'을 앞세운다. 유재석·박명수·하하·손예진·정일우·바로 등이 거리로 나선다. 노홍철·정준하·정형돈·김태호 PD는 지난 15일 브라질로 출국했다. 이들은 무한도전 응원단 공식 응원가인 '빅토리송 - 승리의 시간' 등에 맞춰 공식 안무 '국민댄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무한도전 응원단의 거리 응원 장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MBC 라디오 '굿모닝FM 전현무입니다'(왼쪽 사진)는 청취자 30여 명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함께 응원할 계획이다. 제작진은 생방송 스튜디오에 60인치 HDTV를 설치하고 브라질 현지 경기장 오디오까지 받아 생생한 관전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 월드컵 캐스터 제안을 받았던 전현무 전 아나운서의 축구 경기 중계 실력을 '굿모닝FM'에서 엿볼 수 있을지 청취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KBS2 '우리동네 예체능' 출연진들은 광화문 거리에서 응원을 펼친다. 이덕화 감독을 비롯해 강호동·서지석·이정·윤두준·이기광·민호 등 일곱 멤버는 경기 시작 전 광화문을 찾아 붉은 악마 응원단에 합류해 경기를 끝까지 관람할 계획이다. 방송 관계자는 "우리 대표팀의 첫 경기를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며 한국의 선전을 기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동네 예체능'은 월드컵 시즌을 맞아 축구편을 방송 중이다.

SBS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향한다. SBS 파워FM '김창렬의 올드스쿨'(오른쪽)은 이날 오전 4시부터 삼성동 코엑스 사거리 영동대로 앞에서 거리응원과 함께 공개방송을 생중계한다. 이날 공개방송엔 장기하와 얼굴들·장미여관·[illegible]·이정·박현빈·엔씨아·자연·선미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한편 신곡 '행오버'를 발표한 가수 싸이(아래)도 이날 영동대로 코엑스 앞 특설무대에서 한국 대표팀 응원을 위한 특별 공연을 준비했다. 강남구는 안전을 위해 경찰·소방서 등과 협력해 1000여 명의 안전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응원 시간동안 삼성역 사거리에서 코엑스 사거리 구간의 삼성 7차선 도로는 통제된다.

/김지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무도' 브라질 일간지에 응원 광고

손예진 등 월드컵 응원단, 서경덕 교수와 함께

MBC '무한도전'과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브라질 월드컵 응원에 나섰다.

무한도전 멤버들이 출연하고 서 교수가 기획한 광고가 지난 16일 브라질 3대 일간지인 폴라 데 상파울로 스포츠 9면에 게재됐다.

광고는 빨간색 디자인과 어우러진 공식 응원 문구인 '즐겨라, 대한민국'이 돋보인다. 포르투갈어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8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대한민국.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힘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도 덧붙였다.

서 교수는 "브라질 월드컵을 맞아 '스포츠 강국' 이미지를 부각하고 싶었다. 현재 중남미 지역엔 K팝과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광고는 대표팀 응원과 한류 홍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에는 무한도전 응원단(손예진·정일우·자상렬·바로·리지)도 참여했다. 김태호 PD는 "첫 경기에 맞춰 광고를 해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기여하고 싶었다"고 참여 배경을 전했다.

앞서 서 교수와 '무한도전'은 뉴욕 타임스와 뉴욕 타임스 스퀘어 등 세계적인 유력 매체와 관광지에 비빔밥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신효진기자 [illegible]

MBC '무한도전' 서경덕 교수의 브라질 월드컵 응원 광고

포르투갈 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독일의 토마스 뮐러가 페널티킥으로 첫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왼쪽). 위르겐 클린스만 미국 감독이 가나에 승리를 거두고 환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전차군단' 브라질서 승리 진격

독일, 포르투갈에 완승… 클린스만의 미국, 가나 꺾어

17일은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의 날'이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닷새째인 17일은 독일 입장에선 두 개의 경사가 겹친 날이다. 이날 열린 G조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는 '전차군단' 독일과 독일의 간판 스트라이커 출신인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미국이 나란히 승리했다.

독일은 사우바도르 폰치노바 경기장에서 열린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4-0 압승을 거뒀다. 전반 12분 포르투갈의 수비수 주앙 페레이라가 마리오 괴체를 잡아챘다는 판정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뮐러가 골로 연결시켜 기선을 제압했다.

전반 32분에는 토니 크로스의 코너킥을 마츠 후멜스가 헤딩으로 밀어넣어 2-0을 만들었다. 독일은 전반 추가시간에 크로스가 올린 크로스를 뮐러가 왼발로 차넣어 3-0까지 달아났다.

뮐러는 후반 33분 쐐기골까지 넣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득점왕인 뮐러는 첫 경기부터 3골을 몰아넣으며 두 대회 연속 타이틀 획득에 시동을 걸었다.

미국은 나타우의 두나스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가나에 2-1 승리를 거뒀다. 미국은 2006 독일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과 2010 남아공 월드컵 16강에서 가나와 맞붙어 모두 1-2로 패했다.

미국은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고 관중의 함성이 채 사라지기도 전인 전반 32초 만에 첫 골을 터뜨렸다.

반격 수위를 높인 가나는 후반 37분 앙드레 아유의 슛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미국의 필승 의지는 식지 않았다. 존 브룩스는 동점 허용 4분 만에 코너킥으로 올라온 공을 헤딩골로 연결시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가나를 꺾은 미국은 독일전을 치르며 만신창이가 된 포르투갈을 상대로 23일 2차전을 치르며 16강 진출에 승부를 건다. 클린스만 감독은 27일 고국인 독일을 상대로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와 감독으로 출전한 5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첫 경기를 승리하는 기록을 썼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외로운 슈퍼스타 '동료야? 적이야?'

호날두 팀 도움 없이 졸전

세계 최고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월드컵 컴백 무대는 동료들의 사고 수습만 하다 씁쓸하게 끝났다.

포르투갈의 공격수 호날두는 17일 브라질 사우바도르의 폰테 노바 경기장에서 열린 독일과의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G조 1차전에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 경기를 소화했지만 명성에 한참 못 미치는 플레이로 팬에게 아쉬움을 전했다.

호날두는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와 유럽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에 오르고 국제축구연맹(FIFA)이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를 수상하는 등 자타공인 세계 최고 선수다.

그러나 호날두에게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고, 동료들은 독일 수비진을 돕고 호날두에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짐이 됐다.

주장인 호날두는 연달아 터진 동료들의 파울에 점점 평정심도 잃어갔다. 전반 11분 브루노 이우베스가 페널티지역에서 파울을 하며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줬고, 페페는 토마스 뮐러를 머리로 가격하는 황당한 행동으로 퇴장을 당했다. 호날두는 결국 후반전 심판의 석연치 않은 판정이 나오자 격하게 항의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포르투갈의 주전 최전방 공격수 우고 알메이다는 허벅지 통증으로, 왼쪽 풀백 파비우 코엔트랑도 사타구니 부상으로 실려나갔다. 하울 메이렐레스는 심판이 등 뒤에서 손가락으로 욕을 하다 방송 카메라에 잡혀 출장 정지 등 추후 FIFA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호날두는 동료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0-4 패배로 고개를 떨궈야 했다. /유순호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독일과 포르투갈 전이 끝난 후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복수혈전' 미국 '과다 출혈'

월드컵 이모저모

미국 축구 대표팀이 가나를 상대로 완전한 복수에 성공했다. 그러나 미국은 자존심 회복에 성공했지만 앞날이 막막해졌다.

오직 승리만을 바라보고 내달린 탓에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다. 줄부상의 신호탄은 전반 조반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일찌감치 터져 나왔다. 클린트 뎀프시의 벼락같은 골로 미국이 리드를 잡고 있던 전반 21분 공격수 조지 알티도어(선덜랜드)는 가나의 존 보에(스타드 렌)와 공을 다투다가 왼쪽 햄스트링을 다쳐 2-3차전 출장이 불투명해졌다. 주장 뎀프시도 정상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그는 전반 31분 가나의 보예와 공중볼을 두고 경합하던 중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보예의 발에 코를 맞아 코피를 흘렸다. 수비수 맷 베슬러(캔자스시티)도 부상 행렬에 끼었다. 그는 오른쪽 햄스트링 이상으로 후반 시작과 동시에 존 브룩스(헤르타 베를린)와 교체됐다.

클린트 뎀프시 /AP 연합뉴스

◆32초 최단시간 골 기록

미국-가나전에서 이번 대회 최단시간 골이 터졌다. 미국의 베테랑 공격수 클린트 뎀프시(시애틀)는 17일 브라질 나타우의 두나스 경기장에서 열린 조별리그 G조 1차전에서 전반 32초 만에 선제골을 넣었다. 미국 주장 뎀프시는 왼쪽 측면에서 가나 수비수 설리 문타리(AC 밀란), 존 보에(스타드 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강한 왼발 슈팅으로 가나의 골망을 갈랐다. 경기 시작 32초 만에 터진 뎀프시의 이날 골은 이번 대회 최단시간 골로 기록됐다. 역대 월드컵에서는 5번째로 빠른 골이다.

역대 최단시간 골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나왔다. 터키의 하칸 슈쿠르는 2002년 6월 29일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의 3·4위전에서 11초 만에 골을 기록했다.

◆축구보는 남편 여행가는 아내

브라질 월드컵 열기로 중국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바로 '축구 미망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축구 미망인'은 축구에 빠진 남편을 뒤로 하고 "이때가 기회"라며 여행가방을 꾸리는 아내들을 말한다.

중국 한 여행사의 발표에 따르면 18일 서울과 제주도 투어 신청자 24명 중 1명만 남성이다. 이처럼 큰 성별차는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는 일이다. 여행사 측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한 명뿐인 남성 관광객을 여행사 남성 직원과 한 방을 쓰도록 했다. 대신 여성들을 위해 면세점 방문 등 쇼핑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스케줄을 긴급 변경했다. /김성현기자

홍명보와 카펠로의 승리 동상이몽

한국-러시아 전 앞둔 두 감독 '겸손 vs 여유' 첫 경기 각오

홍명보 감독(왼쪽 사진)과 파비오 카펠로 러시아 감독(오른쪽)의 선택은 엇갈렸다. 결과가 이들의 선택을 판결한다.

홍 감독과 카펠로 감독은 17일 조별리그 H조 1차전을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설전을 벌였다.

러시아 취재진이 '선수들이 한국을 너무 모른다'는 질문에 카펠로 감독은 "상대 선수들의 이름까지 알필요는 없다"며 "한국과는 예전에 경기를 치른 바 있다. 선수들이 그 팀(한국)의 특징을 알면 족하다. 우리는 잘 준비했다. 최적의 컨디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기자회견에 나선 홍 감독은 "한국식 이름이 외국인 입장에서 외우긴 어려울 것"이라고 응수했다.

두 지도자는 현역시절 아시아와 유럽을 대표하는 선수였다. 4번이나 월드컵 무대에서 선두로 뛰었던 홍 감독은 '영원한 리베로'라는 애칭을 얻으며 태극전사 투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카펠로 감독은 AC밀란과 유벤투스, AS로마 등 이탈리아 세리에A를 대표하는 명문팀에서 화려한 현역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지도자로 걸어온 길은 서로 달랐다. 홍 감독은 2006년 독일월드컵을 통해 지도자의 길에 입문했다. 이후 2009년 이집트 청소년월드컵(20세 이하)과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2년 런던올림픽을 거쳐 2014년 브라질월드컵까지 차분하게 경험을 쌓았다.

카펠로 감독은 AC밀란 수석코치를 거쳐 곧바로 감독으로 승진해 유벤투스의 로마 뿐만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 잉글랜드 대표팀 등에서 화려한 시절을 보냈다.

결전을 앞둔 각오에서도 겸손함과 여유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첫 경기를 앞두고 홍 감독은 "내일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후회없는 경기를 할 것으로 믿는다"며 "그동안 많이 부족했으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본다"고 짧막하게 말했다.

반면 카펠로 감독은 "우리는 최상의 준비를 해왔고 이미 한국과 평가전을 치른 적도 있다"며 "가장 큰 생일 선물은 한국전 승리"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두 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후반 들어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지적된 만큼 쿠이아바에서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성욱기자 ysw@metroseoul.co.kr

망가진 무적함대 정상궤도 찾을까

스페인, 칠레 상대 명예회복 관심

월드컵 프리뷰

망가진 '무적함대'가 다시 우승의 정상궤도에 진입할 지 지구촌 축구팬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한다. 스페인에 대승을 거둔 네덜란드가 우승 후보급 전력을 이어갈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호주-네덜란드(오전 1시·베이라리우 주경기장)

선굵은 축구로 세계최강 스페인의 '티키타카'를 무너뜨린 네덜란드는 이번 경기로 우승 전력을 검증받는다. 공격의 핵안 로빈 판 페르시와 아리언 로번이 첫 경기에서 각각 두 골씩 터뜨리며 골 맛을 본 것도 팀 상승세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칠레에 3골을 내준 호주는 네덜란드의 불붙은 공격력을 어떻게 막을 지가 관전포인트다.

◆스페인-칠레(오전 4시 마라카낭 주경기장)

첫 경기에서 만신창이가 된 스페인은 이번 경기에서마저 흔들린다면 16강 진출 탈락의 수모를 감수해야 한다. 4년 전 남아공에서도 첫 경기를 지고 우승했던 전력을 내세우며 애써 침착하려고 했지만 네덜란드에 입은 내상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흠 정기나 다름 없는 이점을 지난 칠레의 전력이

스페인 대표팀이 지난 14일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실점한 후 심판에게 항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호락호락하지 않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 바르셀로나의 주전 골잡이이자 칠레의 메시로 불리는 알렉시스 산체스는 누구보다 스페인의 전력을 잘 알고 있다. 산체스는 첫 경기부터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확실하 몸을 풀었다.

◆카메룬-크로아티아(오전 7시 아마조니아 경기장)

브라질과의 개막전에서 판정 논란으로 피가 진득 난 크로아티아가 분풀이를 할 상대는 카메룬뿐이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16강 진출도 어렵게 된다. 1차전에서 멕시코에게 패한 카메룬의 상황도 비관가잔다.

크로아티아의 플레이메이커 루카 모드리치가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발을 다쳐 제 컨디션이 아니다. 카메룬은 최전방 공격수이자 팀 최고의 스타인 사뮈엘 에토오가 무릎 부상에 시달리면서 훈련에 차질을 빚어 출전이 불투명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lo@

류현진 초고속 8승 달성

내셔널리그 다승 공동 3위 현재 페이스면 20승도 가능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특유의 안정감 있는 투구로 시즌 8승(3패)째를 올렸다.

류현진은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3피안타(1피홈런) 1볼넷 6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솔로 홈런을 맞긴 했지만 볼넷은 단 한 개만 내줬고, 고비 때마다 삼진(6개)으로 상대 타자를 돌려세우며 메이저리그 전체 팀 타율 1위 콜로라도 타선을 제압했다. 평균자책점은 3.33에서 3.18로 낮췄고, 홈경기 평균자책점도 6.15에서 5.01로 떨어뜨렸다.

이날 시즌 8승을 달성한 류현진은 9승을 거둔 애덤 웨인라이트(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알프레도 사이먼(신시내티 레즈)의 뒤를 이어 잭 그레인키(LA다저스), 매디슨 범가너(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함께 내셔널리그 다승 공동 3위에 등극했다.

지난 시즌보다 약 한 달 이상이나 빠른 시점에 달성한 8승이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 7월 23일 토론토 블루제이스 원정 경기에서 8승째를 달성했다.

다저스가 17일 경기를 마무리한 가운데 남아 있는 정규시즌 경기는 90경기다. 5인 로테이션 체제에 따라 류현진이 부상 없이 정상적인 피칭을 이어나간다면 앞으로 약 17~18회 등판이 가능할 전망이다.

17일까지 류현진은 12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8승 3패를 거뒀다. 산술적 수치라면 남은 17~18회 등판에서 최대 12승을 더 거둬 시즌 20승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상이나 우천 취소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고 있어 산술적 수치는 의미가 없지만 현재 페이스라면 지난 시즌 성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욱기자

프로야구 전적 (17일)

■잠실

LG	103	010	010	6
두산	000	200	131	7

[illegible]

■문학

한화	012	220	500	12
SK	400	000	001	5

[illegible]

■광주

넥센	020	150	001	9
KIA	002	000	110	4

[illegible]

■마산

롯데	400	010	000	5
NC	500	010	40X	10

[illegible]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국민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KB★Story통장~